

윤석열 대통령, APEC 정상회의 세션2에서 다자 무역체제 복원, 역내 공급망 연계성,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APEC의 역할과 협력 강조

다자 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APEC의 리더십 발휘 강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중인 제 30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7, 금) 11:00-12:30간 개최된 두 번째 세션인 리트리트(주제: 상호연계, 포용적이고 회복력 있는 경제 만들기)에 참석했다.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변곡점에서 APEC에 주어진 역할을 강조하고,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긴밀히 연대하며 포용적이고 회복

력 있는 경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먼저, 대통령은 규범에 입각한 다자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기여한 APEC이 다자무역 체제 복원을 위해 다시 한번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점에서 내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가 다자무역 체제 복원

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WTO 개혁과 복수 국가 간 협정 체결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APEC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구했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반함을 지적하고, APEC이 공급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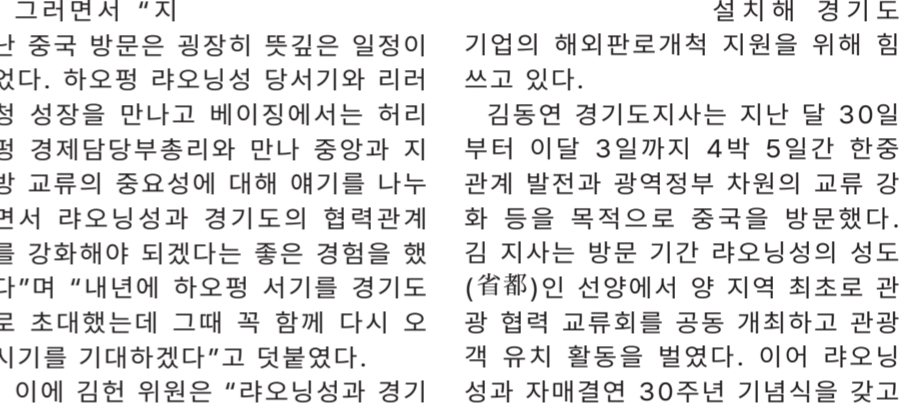
구축하는 등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우선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APEC이 공급망 연계성 프레임워크 행동계획을 통해 공급망 병목점 해소를 위해 노력해 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9월 발표한 '디지털 권리장전' 핵심 원칙을 소개하고 AI·디지털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에 있어 APEC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AI를 비롯한 디지털이 인간의 자유와 후생을 확대하고 사회 전체가 이러한 디지털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려야 함을 역설하며,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할 "AI 글로벌 포럼"에 대한 회원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APEC의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에도 기여할 것이며, 2025년 의장국으로 대한민국이 아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두 번째 세션 발언은 규범 기반 무역 질서 복원과 역내 공급망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 거버넌스 수립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을 재확인함으로써,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역내 경제 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한 역할과 기여 의지를 확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광수/기자

경기도 김동연지사 중국 방문에 화답한 기업인들... 라오닝성 경제무역교류단과 협력방안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라오닝성(遼寧省) 기업 28개사로 구성된 경제 무역 교류단의 대표와 만나 경기도-라오닝성 간 기업 협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날 31일 김동연 지사가 라오닝성을 방문해 협력 강화의사를 밝힌 지 20여 일 만에 라오닝성 기업이 경기도 기업과 협력 기회를 찾기 위해 도를 찾은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헌(金憲) 중국 정치협상회의 위원 등 라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의 대표들을 만나 "앞으로 라오닝성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경기도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투자, 문화, 관광, 인적교류 모든 면에서 더 많이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중국 방문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다. 하오핑 라오닝성 당서기와 리러청 성장을 만나고 베이징에서는 허리핑 경제담당부총리와 만나 중앙과 지방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라오닝성과 경기도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좋은 경험을 했다"며 "내년에 하오핑 서기를 경기도로 초대했는데 그때 꼭 함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헌 위원은 "라오닝성과 경기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30명의 라오닝성의 우수한 기업가와 함께 경기도를 방문하게 됐다. 많은 기업가들이 오고 싶어 했지만, 한국기업에 투자 의향이 있는 분들만 선정했다"며 "경기도 경제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무역투자 등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라오닝성과 경기도의 우호관계를 더욱 돈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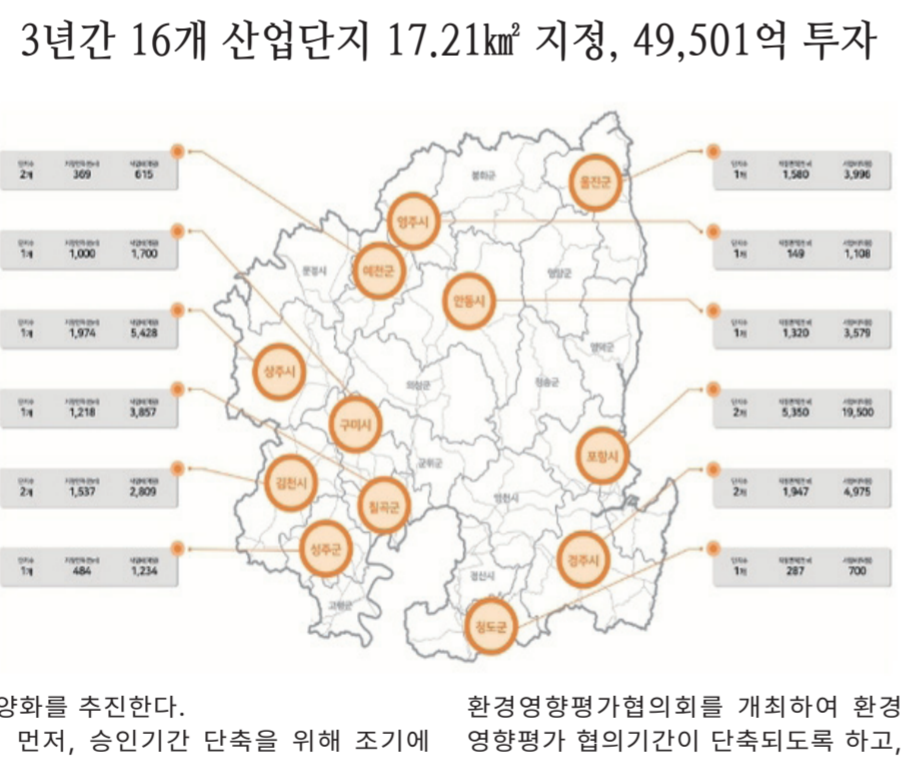
히 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28개사 30명으로 구성된 라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은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하고 경기도-라오닝성 경제무역 세미나에 참가한다. 세미나는 ▲엔데믹 시대의 통상 협력 방안 ▲라오닝성 기업 소개 ▲이커머스플랫폼 활용 방안 ▲문화콘텐츠에 대한 소비자 성향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라오닝성은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성(黑龍江省)과 더불어 동북 3성으로 불리는 것으로 3성 가운데 경제가 가장 발달했다. 경기도는 1993년 10월 라오닝성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난 10월 경기도-라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또한 도는 라오닝성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을 설치해 경기도 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4박 5일간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김 지사는 방문 기간 라오닝성의 성도(省都)인 선양에서 양 지역 최초로 관광 협력 교류회를 공동 개최하고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였다. 이어 라오닝성과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갖고 경제·관광·문화·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는 공동선언서 서명하는 등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협력 강화 활동을 했다. 이 밖에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한중경제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병상/기자

김동연 지사, 20일 중국의 국경자문기구인 중국정치협상회의의 김헌 위원을 비롯한 라오닝성 경제무역 교류단의 대표를 만나 기업 협력 방안 모색



경북도, 투자유치 기반 마련 위한 산업용지 적기 공급 추진!

경북도는 지역주력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시설용지의 신속한 확충 및 적기 공급 등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156개에 총면적이 139.2km²에 달하나, 기업 입주 가능 용지는 6.45km²로 38개의 산업단지에 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대규모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3년간 16개소의 산업단지에 49,541억을 투자하여 17.21km²(5,217천평)를 신규 산업단지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해 나가기 위해 산업입지수급계획에 산업시설용지의 연평균 수요면적을 대폭 확대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산업단지의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다양화를 통해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신속한 투자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산업단지 승인기간 단축과 유치업종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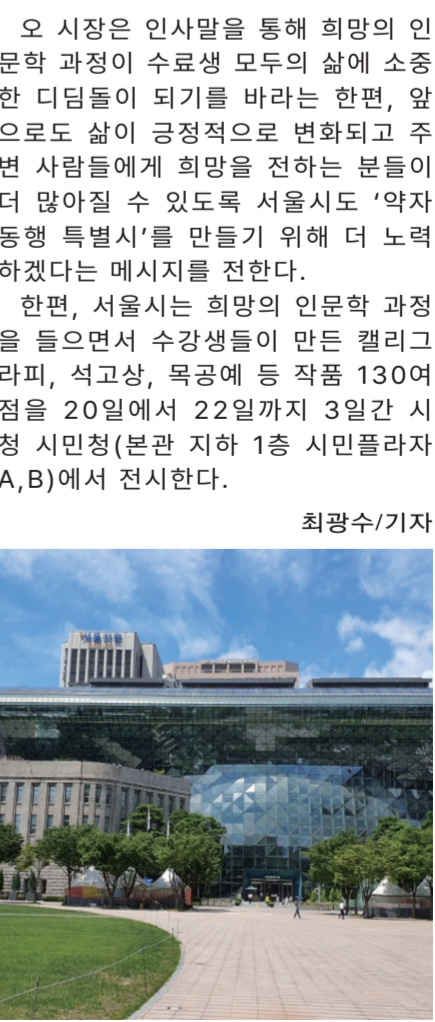
농지·산지 분야 사전협의 등을 통해 보완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각 필지별 1개의 업종으로 계획되어 있어 업종이 맞지 않을 때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입주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필지별 여러 개의 업종이 입주 가능하도록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북도는 이와 같은 승인기간 단축 및 유치업종 중복지정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민간개발사업도 또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투자유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이 원하는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므로 산업단지 확충을 더욱 빠르고 신속하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 인문학 배우며 자활·자립의 희망 쏘아올린 수료생 격려

21일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21일 14시 서울시장 8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에 참석해 8개월여 간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수료생들을 격려한다. 오세훈 시장의 첫 재임 시절인 2008년 시작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 약자들이 자기성찰 등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의지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000여 명에 이르는 노숙인과 저소득층 시민이 참여했으며, 10년 만에 다시 재개된 지난해에는 303명이 수료를 마쳤다. 이날 수료식에는 서울시립대와 건국대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 수료생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희망과정 수료생 150여 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각 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 서울시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올해 희망의 인문학은 수요조사 거쳐 행복과정(서울시립대·건국대 주관), 희망과정(시설주관), 대학특강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으로 진행됐다.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592명(수료율 80%)이 수료증을 받는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여수 김미선 대표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상

원물 맛 살리는 다양한 가공기법 개발해 수출 증가 등 호평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자를 발굴해 추천한 여수 김미선(쥬아라움 대표)가 2023년 해양수산 신지식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으로 공유해 수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한 인재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7월 후보자를 추천받아 8월 1차 심사를 거쳐 11월 해양수산부 전문위원회에서 선정됐다. 김미선 대표는 30년간 수산식품을 가공하고,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단순 가공과 2차 가공을 넘어 원물 맛을 살리는 튀김 형태 등의 다양한 가공기법

을 개발했으며, 이를 통한 매출 상승, 수출 증가 등 성과를 거뒀다. 또 2020년부터 유럽 아마존, 미국 코스트코 등에 입점하고 튀김식품 수출을 위해 자체 브랜드인 '튀앤포'를 개발해 미국, 중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 상표등록하고 현지 판촉행사,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전국에서 3명이 선정됐으며 20일 충남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제7회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기념식에서 신지식인 인증서와 해양수산부 장관 상장·상금을 수여했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2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다. 지난해에도 전국 4명 중 전남은 2명으로 1위(대상)와 3위(우수상)를 차지했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신지식인의 창의적인 새로운 기술과 혁신모델이 확산·공유돼 지역 해양수산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미래를 선도할 새로운 신지식인을 지속해서 발굴,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일·김대진·권광택 의원,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위한 컨트롤타워 경북도내 유치 강조

경상북도의회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경상북도의회 김대일 위원장(문화환경위원회)과 김대진, 권광택 의원은 지난 17일 안동문화예술평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세계유산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산재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들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과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고,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방안

에 대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대일 위원장, 김대진·권광택 의원 공동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상호 센터장(한국국학진흥원 기록유산센터), 김성실 부연구위원(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좌장을 맡은 김대일 위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센터장은 '경북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특징, 그에 따른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스토리를 통한 가치제고, 문화유산·기록유산·무형유산·자연경관 가치사슬 연결을 통한 새로운 해석의 틀 창출, 주제별 유산과의 연계와 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부연구위원은 "세계유산을 통한 경북의 미래지향적 상생방안"이라는

주제로, AI 디지털 휴먼을 통한 역사인물 재현, 디지털 기반 문화재 관리 시스템 도입, 3D스캔 데이터를 기초로 한 디지털 헤리티지 실감형 콘텐츠 제작 등 경북 문화유산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인류무형문화유산 교육시스템 마련 및 긴급보호 지정,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 통한 세계유산 통합 관리, 허도령 이야기, 하회선유출분놀이 등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 및 킬러콘텐츠 마련, 기후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방안' 주제에 걸맞는 다채롭고 세부적인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대일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가 경북도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보존과 활용방안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모아 경상북도의회 차원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길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한 국립 세계문화유산원 건립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하루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대안제시와 제도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윤근수/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 57번 국지도 관련 시정질문

용인특례시의회 김상수 의원(포곡읍, 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국민의힘)은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57번 국지도 개통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번 국지도는 2006년 「제2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담겨 2011년 재정사업으로 당시 토지보상도 5% 진행됐으나 2016년 타당성 재조사 결과 높아진 토지보상비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사업성이 낮게 평가되어 도로는 끊겨진 채 17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현재까지 미개통된 구간은 총 10.9km로 1구간인 태재고개부터 광주시 오포읍까지 5.1km와 3구간인 포곡읍부터 고림동까지 5.8km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GS건설에서 경기도에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고, 지난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가 통과돼 결국 올해 민자 유료도로로 승인됐다며, 끊긴 57번 국지도가 있다는 소식에 그토록 바라던 도로가 이제라도 이어질 것만 같아 주민들은 환호했지만 지난 17년을 인고의 시간으로 기다린 주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통행료뿐이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의원은 첫 번째로 4년 전 완공된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공사비 530억원)과 마성IC와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백IC 설치사업」(공사비 1137억원)은 함께 총 1667억 원의 시비 100% 사업인데, 용인시는 시비 100%인 이 사업들의 국·도비 매칭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달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로, 국지도는 광역의 권한이고 국가차원 지방도이지만 주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을 안기지 않도록 용인시에서 보다 더 강력하게 광역과 국회에 피력해 「57번 국지도 설치사업」 민자 유료 도로화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세 번째로, 처인구민의 17년간 숙원사업인 57번 국지도는 민자 유료도로로 추진되는 반면에 동백IC는 3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시비 100%로 설치한다면 이는 모두 같은 용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기흥구민과 처인구민 간의 실질적인 차등을 두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처인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로까지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 시장은 처인구민에게 소상히 해명해 달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처인구민의 바람인 57번 국지도가 20년이 되기 전에 하루빨리 이어져 용인시민들이 무료로 편히 이용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줄어들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도시로써, 그리고 특례시로써의 위상을 높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시정질의를 마쳤다.

김범상/기자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 노후건물(40년이상 경과) 보유학교, '25년 되면 50%로 증가

이대석 의원, "학교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시급"

학교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가 2010년 104개교에서 현재 282개교로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330개교까지 늘어난다. 전체 학교의 50%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은 11월 20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건물 노후 가속화에 대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부산시 교육청이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보유 학교+'는 ('10년)16.6%(104교) → ('15년)24.0%(155교) → ('20년)32.4%(212교)로 증가했으며, ('25년)에는 49.7%(330교)까지 확대된다.

학교건물 동수를 기준으로 하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은 ('10년) 11.6% → ('15년)17.8% → ('20년)23.3% → ('25년)35.7%로 늘어난다. 전체 학교건물 1,456동 중 520동에 해당하는 규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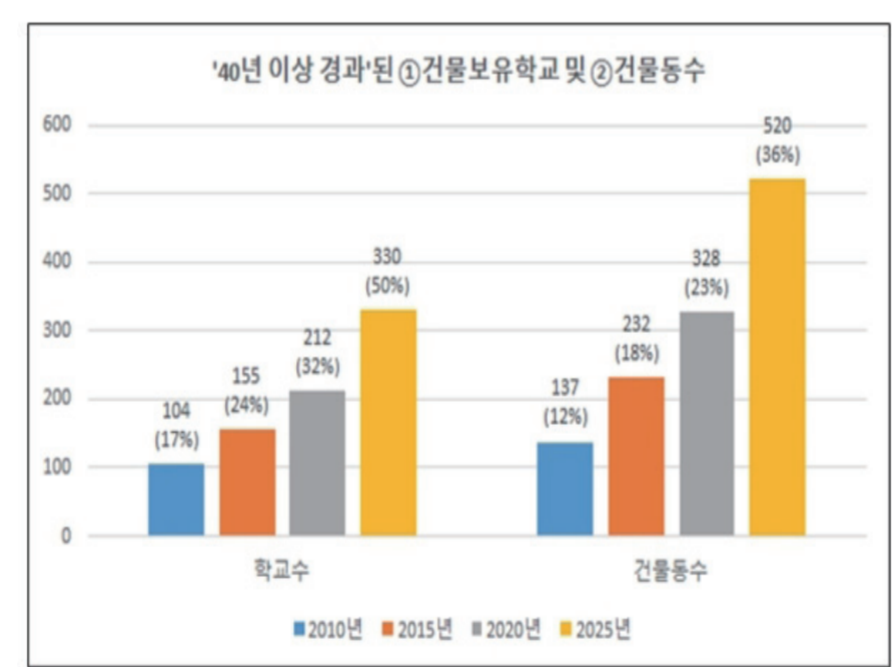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도 문제다. '10년부터 '20년까지는 연평균 19개동씩 노후건물이 증가했으나, '20년부터는 2배

에 해당하는 규모인 38.4동씩 매년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노후건물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개축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개축공사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하여 '40년 이상 노후건물'에 대해 4년마다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고 건물안전등급이 D등급 또는 E등급으로 평가 시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강 또는 개축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23.8월말 기준) 부산지역 학교 점검대상 시설건물 총 1,456동 중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건물'은 444동이다. 이들 건물의 안전등급은 대다수가 B등급/C등급으로 개축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시설 노후화에 따라 한꺼번에 개축대상 건물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예산 확보 및 공사추진 어려움에 대한 우려가 있다. '20년 이후 현재까지 증가된 노후건물 수는 116개동이지만, 동 기간 개축공사가 완료된 건물동수는 7개동에 불과했다.

건물노후화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심각한데도 개축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건물 보유학교는 △'중학교'의 경우 공립은 42.2%인데 비해 사립은 65.7%로 높다. 사립중학교의 경우 전체건물의



45.1%가 노후건물이다. △'고등학교' 역시 노후건물 보유학교가 공립 42.9%, 사립 53.3%로 사립이 높았다. 그러나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축공사가 완료된 10개 학교 및 현재 추진중(그린스마트스쿨사업 포함)인 19개 학교 모두 공립학교로 나타났다.

이대석 의원은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있는 위기 속에서 시설 예산도 감

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건물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교건물의 노후화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교육청 단위를 넘어 국가수준에서 획기적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태/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산업생태계연구회, CJ라이브시티 사업 간담회 개최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지난 11월 17일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CJ라이브시티 사업 추진 경과 및 현황과 관련하여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업생태계연구회 소속 의원을 비롯하여 CJ라이브시티 정영권 사업개발본부장, 김기남 전략지원팀장 등 사업담당자와 연구용역사 연구원, 미래산업과, 건축정책과 등 집행부 공무원이 함께 했으며, CJ 라이브

시티 아레나 공연장 조성 및 주변 인프라 시설 구축 등과 관련하여 의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주관한 연구회 회장 임홍열 의원은 "알고보면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의 미래 판도를 바꾸는 사업인데 고양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 소홀한 것 같다. 물론 해당 사업이 CJ와 경기도와의 계약관계이지만 CJ라이브시티가 성공하면 고양시는 K-콘텐츠의 세계적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고양시의 명운이 걸려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양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사업을 뒷받침할 관련 팀 편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앞으로 CJ라이브시티가 K-콘텐츠 글로벌 명소가 되어 우리 시의 문화산업생태계 자족 기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산업생태계연구회는 임홍열 의원이 회장, 박현우 의원이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안중돈, 신인선, 권용재 의원이 회원으로 11월 말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한영기/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안전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실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 305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17일,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제305회 정례회에 상정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사업 대상

지(동구 괴전동 일원)를 찾아 관계자에게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등을 보고받는 등 사업 전반을 확인하고자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여성가족부 고시[제 2021-17호, 2021. 4. 16., 제정]를 근거로,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을 위해 대구시가 사업대상지 44필지 중 사유지 37필지에 대한 부지매입비를 우선 부담하되, 추후 국유지와 등가교환 해 결국 부지

매입비를 국가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후속 절차에 대해 주로 논의했다.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중구1)은 "11월 21일 심사하게 될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한 사전점검을 위한 현장방문이었다"며,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은 영남권 청소년들의 직업체험 기회 증대 및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21일 제305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2024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안건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동현/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부회장:임성경 청소년보호책임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키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홈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 학교 밖 통학환경 개선 노력 촉구

학부모들과 직접 과천시 울목초중 통학로 점검 사례 제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의원(국민의힘, 과천)은 17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국,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통학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김현석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 밖 통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차도 미분리 학교가 21

자료로 보여주며 “현장점검 결과 보도 한 가운데 설치된 가로등과 한쪽에만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 터널 주변 안전 문제, 울퉁불퉁한 자전거 도로 등 정비할 필요가 한둘이 아니었다”라고 밝히며, “특히 학생들이 주로 다닐 울목초중의 통학로는 대형 공사 차량이 몇 년간은 운행될 수밖에 없는 도로인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별히 통학환경 개선에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선 김진태 교육행정국장은 “지자체 및 경찰서에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으며, 보도 미분리 부분이나 옐로 카펫 등 상당 부분은 개선했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하고 요청하여 학교 밖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답변에 대해 김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 특히 등·학교 시의 통학 안전에 관해서라면 우리 교육청이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나 경찰서, LH 등과 실무협의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이나 교육감이라도 지자체 장이나 경찰서장 등을 만나 설득하고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기를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원 의원, 동물생산업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에 대책 마련 촉구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번식환경 조성에 행정이 역할이 다 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국민의힘, 화성2)은 20일 축산 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반려동물 번식장의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원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번식장은 830개소로 전국의 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행감 요구자료로 받은 동물복지과의 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 평균 사육두수와 면적은 77마리 114㎡로 마리당 1.46㎡로 나타났다. 매일 9마리의 생산마리수를 포함하면, 1마리당 1.2㎡에 불과하다.

또한, 박의원은 “반려견 한 마리당 1㎡(0.3평) 이하의 번식장은 103개소로 전체의 17%에 달하는데, 사육면적이 마리당 0.33㎡(0.1평) 이하의 번

식장도 15개소에 이르는 등 번식장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번식장의 시설 기준이 공간크기가 아닌 동물 50마리당 1인 이상이라는 인력기준으로 되어 있어 생기는 문제로, 지난 9월 도 내한 번식장에서 1,420마리의 반려견이 구조되는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구조된 반려견 중 절반은 경기반려마루에서 보호받다가 입양 중에 있다.

박명원 도의원은 “번식장의 밀집된 사육환경은 법정 제2종 인수공통감염병인 개 브루셀라병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물생산업으로 등록된 번식장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번식환경 조성에 행정이 그 역할을 다 하달라”고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김범상/기자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 김동연 지사에 기회발전특구 추진 공동건의문 전달

김동연 지사, 20일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 5개 시장·군수와 면담



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 등 경기북부 5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경기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구성 중 하나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한 팀이 되어 적극 추진하자고 당부했다.

김동연 지사는 20일 강수현 양주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 김덕현 연천군수, 서태원 가평군수, 이현호 포천부시장(백영현 포천시장 대리참석)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만나 기회발전특구 추진 관련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기회발전특구 협력체를 결성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또는 인구 감소 지역인 5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이뤄졌다.

‘경기북부 5개 시군 기회발전특구 추진협력체’는 건의문을 통해 특구 지정 절차와 면적에 수도권 차별이 없도록 낙후 지역에 대한 경기도와 정부의 정책적 배려를 요청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남북 대립과 갈등의 접점에서 지역발전 기회를 상실한 채 수도권 성장 속 소외의 길을 걸어온 경기 북부 5개 시군에 대한 적극적 이해와 정책적 배려를 건의한다”며 “특구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위임법령 및 정책 수립 시 수도권 대상 시군에 대해서도 동등한 효력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건의문을 받으며 “경기북부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별자치도 추진을 본격화하면서 북부의 실상이나 앞으로의 방향에 있어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어떤 분들은 북부특별자치도로 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지고 더 못살게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판을 바꾸지 않으면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낙후될 수밖에 없다. 판을 바꾸는 일이 바로 북부특별자치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제는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인데 그래서 기회발전특구 관련법이 지난 5월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기회발전특구를 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한 하나의 구성으로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고 원팀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고 강조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기회발전특구의 출발점부터 비수도권과 차별이 생기고 있는데 지사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특별자치도 추진에 있어서도 5개 시군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유치와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경기도에서는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대상이다.

그러나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정과 면적 상한을 결정하고 있으며 특구 내 창업이나 공장 신·증설 시 지방세 감면율에도 차별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등을 통해 수도권 내 대상 시군이 차별받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난달 27일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며, 기회발전특구 추진에 경기도 북부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북부 5개 시군은 지난 7일 연천군에서 기회발전특구 추진 협력체 결성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력체는 5개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정성호·김성원·최춘식 국회의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해 평화경제특구 지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2040년까지 17년간 경기북부지역에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앞서 20일 오전에 열린 2023년도 4분기 북부기우회(北部畿友會)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비전과 전략수립,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결까지 다 거치고 마지막 단계로 주민투표만 남아 있다”면서 “12월 중순까지만 결론난다면 2월 안에 주민투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경기북부지역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게 협력을 요청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유형진 도의원, 대책없이 추진되는 道 교통정책... 충분한 소통·논의가 선행돼야

‘경기버스라운지’ 향후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형진 도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20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경기버스라운지’ 및 ‘더 경기패스’ 등 경기도 교통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유형진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24년부터 시행하여 '27년까지 전체 시내버스 노선에 적용하고자 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시군별 부담할 예산을 확인해보니 도저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서 정책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며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국의 공공관리제 추진을 지적했다.

이어 “예를들어 광주시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이 약 1조 원인데, 그 중 약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공공관리제에 투입한다면 향후 시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기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한다고 하더라도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현재 상태로

3주간,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 | 경상북도 |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하나요?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이런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접종대상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table border="1"> <tr> <th>접종 일정</th> <th>접종 대상</th> </tr> <tr> <td>2023.10.19.(목)~2024.3.31.(일)</td> <td>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td> </tr> <tr> <td>2023.11.1.(수)~2024.3.31.(일)</td> <td>그 외 12-64세</td> </tr> </table>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수원시 "24~25일 수원에 오면 예뻐집니다!"

뷰티산업 견인할 '수원뷰티페스타 2023'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오는 24~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수원뷰티페스타 2023'이 열린다. 수원의 뷰티 산업 활성화와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11월 마지막 주말, 특별한 선물을 보따리를 한아름 풀어낼 예정이다. 화장품과 헤어케어 등 생활 속 뷰티제품은 물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꿀 수 있는 이너뷰티와 헬스케어, 뷰티와 첨단기술이 만난 뷰티테크 등 볼거리가 가득하다. 아름다움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수원뷰티페스타에서 보고 듣고 체험하며 예뻐질 기회다.



◇화장품부터 뷰티테크까지, 83개 기업 한자리에
'수원뷰티페스타 2023' 전시홀은 뷰티기업관 2곳과 첨단뷰티관 등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화장품과 피부·바디·헤어·네일 등 이의 제품군이 뷰티 기업관을 채우고, 원료·뷰티테크·컨설팅 관련 업체들은 첨단뷰티관에서 관람객을 만난다. 총 97개 뷰티기업과 단체가 참가한다.

기업체 (주)AGE21 등 수원의 뷰티테크 업체와 스마트 미러 기술을 활용한 미러로이드, 스마트폰과 특수렌즈를 활용해 피부상태 측정하는 닥터케이헬스케어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뷰티테크 기업들이 참가한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로 참가하는 뷰티 업체 로고스바이오올렉트 로닉스도 눈길을 끈다. 삼성전자 C-Lab(사내 벤처 육성 프로그램) 출신 기업으로, 첨단 센서와 AI기술로 집에서 고객의 발을 분석하고 3D 자동 제조 기술로 바닥을 만든 맞춤형 무단자를 출품해 관람객 체험은 물론 뷰티 영역의 확장을 보여준다.

이 밖에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를 둔 원료업체 엔비바이오펜터는 우수한 효능에 감성을 더한 화장품 원료와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로 프리미엄 셀프케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

◇K-뷰티산업의 다양한 즐거움을 경험하라!
수원뷰티페스타 2023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 상품도 다채롭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최신 뷰티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틀 내내 펼쳐진다. 미용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전시체험은 물론 세미나와 무대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 밖에도 수원시 영통구에 본사를 둔 원료업체 엔비바이오펜터는 우수한 효능에 감성을 더한 화장품 원료와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로 프리미엄 셀프케어 가능한 제품을 선보인다.

수원뷰티페스타 2023에서 만날 수 있는 체험 상품도 다채롭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최신 뷰티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이틀 내내 펼쳐진다. 미용과 첨단기술이 결합한 전시체험은 물론 세미나와 무대 프로그램으로 참가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수원시 뷰티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뷰티박람회다. 뷰티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시민과 업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수원시 뷰티 산업의 잠재력을 끌어올린다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수원시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개최하는 뷰티박람회다. 뷰티산업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시민과 업계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년 4월 기준 화장품제조업체가 82개소로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9위, 화장품책임판매업은 582개소로 경기도내 4위다. 2020년 기준 미용업소는 3411개소, 이음업소는 296개소가 있어 경기도내에서 이·미용업소 수도 가장 많다. 뷰티에 관심이 높은 20~30대 인구가 31%에 달한다. 성균관대학교 바이오코스메틱학과를 비롯해 대학과 특성화고 등 뷰티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학교가 다수 있어 관학 협력 관계 구축도 용이하다.

이처럼 광범위한 뷰티 산업 기반을 활용하고 수원지역 뷰티기업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수원시는 뷰티박람회를 추진했다.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박람회를 개최해 뷰티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정부의 K-뷰티 육성방안과 혁신 종합전략 등과 맞물려 뷰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복안이었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자문위원회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참여기업 모집과 세부 프로그램 구성 등에 힘을 쏟았다.

특히 수원뷰티페스타에서 운영되는 중화권 유통상담진은 뷰티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것을 돕고자 마련됐다. 까다로운 중국 인허가 절차로 인해 수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뷰티기업을 위해 유통경로 상담을 진행하는 부스다. 중국 보세창고와 이용해 소규모 수출을 간편화하는 방법을 컨설팅해 뷰티 업체들의 중국 시장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탠다.

중국어 소비자들에게 수원뷰티페스타를 소개하는 중국 인플루언서 '왕홍'도 섭외했다. '중국판 틱톡'으로 알려진 더우인에 94만 팔로워를 보유한 '한국사모님'이 현지 라이브 판매 쇼를 진행하고, 90만 팔로워를 보유한 '국러한구여행(중국 세계여행자)'의 크루인 진칭이 전시장 내 기업부스를 돌며 라이브투어를 중계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또 실시간 라이브 방송과 사전홍보 등을 통해 수원뷰티페스타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국내 인플루언서들도 홍보에 함께 참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원뷰티페스타 2023은 시민들과 뷰티산업 관계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될 것"이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방문해 다양한 품목과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체험하며 K-뷰티의 즐거움을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받아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 최대 지원금 2000만원

성남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202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이중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지원 신청서(시 홈페이지→정보공개→부서별 공개자료실)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야 한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오는 25일 '100만 화성 축제' 개최

새로운 도약을 앞둔 화성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비전 선포

화성시가 오는 25일 동탄호수공원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백만화성 축제, 100만 화성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

화성시는 2001년 화성군에서 시 승격 당시 인구 21만에 불과했으나 택지개발 등 급격한 성장을 거쳐 올해 말 인구 1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특히, 2024년도 말까지 인구 100만 명을 유지할 경우 2025년 1월 전국에서 5번째로 특례시 자격을 얻게 된다.

시는 이날 행사에서 100만 대도시로의 도약을 앞둔 화성시의 역사적인 발자취를 함께 돌아보며 새로운 100년을 향한 미래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화성시의 새로운 시작이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연계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오후 4시부터는 가수 이찬원과 이은미의 식전공연이 펼쳐지며 오후 5시부터는 비전 선포식

이 진행된다. 이어, 드론쇼, 가수 라포엠·에일리·윤도현밴드의 축하공연, 루나 분수쇼도 마련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축제가 100만 시민과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만여 명 이상의 시민이 축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분야별 유관부서가 함께 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인구 100만 돌파를 앞두고 관내 기업들도 축하에 동참해 기아 오토랜드 화성과 현대차 남양연구소는 100만번째 시민과 100만30번째 시민에게 각각 최신형 전기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2023년 미세먼지 대응 결과 공유...전기차 충전시설 5천기 이상 설치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하반기 회의 개최

고양특례시는 지난 17일 시청 의회 영상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시의원, 대기환경·환경생태 분야 시민단체 회원, 관련

공무원 등 16명이 참여했다. 고양시 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는 2018년에 최초로 발족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자

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원회는 김동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어서 2023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실적과 2024년 분야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시는 올해 추진 실적(10월 말 기준)

을 발표했다. 시는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승용 분야에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친환경 전기차 충전 시설 총 5,037기(급속 충전기 422기, 완속 4,615기)를 설치했다.

또한 운행차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실시한 엘피지(LPG) 화물차 및 어린이통학 차량 지원 사업에서 979대를 지원하고, 친환경 자동차 1,816대 보급했다. 4·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추진했다.

시는 이외에도 연말까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포켓숲 확충 등의 사업을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위원회에서 전기차 충전소 확대, 생활 속 미세먼지 감시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양시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 '최우수'... 전국 유일 5년 연속 수상

최대호 안양시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안양...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안양시가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에 이어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2023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양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으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은 도시가 됐다.

지난 18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기초·광역 지자체의 규제혁신 사례 중 2차에 걸친 전문가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10건의 사례가 발표됐다.

시는 4년의 끈기로 이뤄낸 규제혁신 사례인 '모래주머니 입지규제 해소로 중소기업을 살린다'를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업집적법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제조 기업이 자사 생산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자사의 기술과 타사 제품을 융합한 '융복합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안양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서 퇴거하거나 추가 자금을 들여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혔다.

이뿐만 아니라 '관내 이전 시 주소지 변경등록 불가' 규제로 인해 소규모 공장은 관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못하고 기존 공장을 등록취소 한 후에 신규 등록해야만 했다.

소규모 공장이 관내 이전 시 등록면허제도 다시 납부해야 하고, 공장등록증 상의 공장 운영기간이 실제보다 짧게 기록돼 입찰에서 불리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2018년부터 중앙부처에 건의를 시작했다.

중앙부처 건의 및 소통 78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 기업 소통 97회, 행안부와 규제혁신 현장협의회 공동개최 등 적극적인 노력 끝에 올해 5월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의 발목을 잡던 두 가지 입지규제를 동시에 해소했다.

이에 따라 안양시 뿐 아니라 전국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약 1500개 기업이 융복합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약 8만개의 소규모 제조기업도 관내 이전시 '변경등록'을 할 수 있게 돼 행정절차 간소화, 등록면허세 이종납부 방지, 지역기업 이력 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5년 연속 수상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며 규제혁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안양시의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규제외 벽에 부딪혀 생사의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 귀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유일하게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 운영, 실증특례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돕고 있다.

이 밖에도 규제혁신 공모전, 전국 최고 수준의 직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현장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 성공적인 규제개혁으로 안양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확고한 의지로 규제혁신을 이뤄낸 공직자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창의적인 사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여러 지식을 배우면서 꿈을 추구하면 융합을 통한 창조를 할 수 있을 것"

20일 '꿈이룸 학생기자단'과 인터뷰...용인의 미래·교육정책·청소년 진로에 대한 진솔한 조언 건네

"뮤지컬 음악에 'Any dream Will Do'라는 노래가 있는데 어떤 꿈도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다. 여러분 각자가 지닌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꿈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0일 시장실에서 '꿈이룸 학생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청소년들이 꿈을 이뤄 나라와 용인의 미래를 밝게 개척할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인터뷰를 위해 시장실을 찾은 강인찬(한숲중)·서하운(문정중)·김수현(나곡중)·최서영(용인중)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고, 응원의 뜻을 전했다.

학생기자단이 본인 소개를 해 달라고 하자 이 시장은 "약 25년 동안 중앙일보에서 정치부 기자와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 그러다 국회의원, 시장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매우 힘든 직업이지만 사회의 창(窓)과 같은 역할로 사회의 여러 모습과 소식을 알려서 많은 이들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과 공공 이익의 조화를 추구하도록 기여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꿈이룸 학생기자단'은 이상일 시장에게 ▲시장이 꿈꾸는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 캐릭터 조아용에 갖는 애정과 미래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 ▲청소년 음주, 마약 문제에 대한 대책 ▲반도체 산업 추진 상황 등 폭넓은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 시장은 각 질문에 상세하게 답했다.

이 시장은 자신이 꿈꾸는 용인특례시의 미래에 대해 시정 비전인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의 뜻과 내용을 설명하면서 "용인특례시민 삶의 질이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도시로 발전시켜 시민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도시,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국민이 용인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꿈인데 시장 혼자서는 할 수 없고 시민과 함께 많은 지혜를 모아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좋은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서하운 학생이 질문한 교육정책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용인 지역 내 185곳의 초·중·고 학교장들과의 간담회를 여섯차례에 걸쳐 진행하고 학교별 사정을 파악한 뒤 지원 노력을 기

울였다. 이어 185개 학교 학부모회장과 교의 간담회도 열고 학부모 입장도 듣고, 필요하면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 발전에 보탬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교사, 학부모들도 만났다.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지원 기간 3년 제한 철폐', '역북초 체육관 신축', '백암초 다목적시설 설립', '백봉초 체육관 신축', '삼계고 통학 지원' 등 꽤 많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용인은 앞으로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

김수현 학생과 최서영 학생이 질문한 '조아용'의 인기 비결과 미래에 대해서는 "용인시민들 사이에서 '조아용'이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한다. 내년에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판다와 공동 상품을 출시하고, EBS 캐릭터 펄수와도 협업을 할 것이다. 조아용의 모습도 보다 다양하게 만들 것이다. 용인특례시 소속인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국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높이

이 시장은 "기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지만 공익을 위해 일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이들을 만나 배울 수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며 "일은 힘들지만 그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고,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배움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만한 직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중세 이탈리아에서 과학과 철학, 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교류



업 역량을 갖춘 도시로 도약할 텐데 우리 학생들이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아 용인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학생들의 마약과 흡연, 음주에 대한 우려에 대한 김수현 학생의 질문에 이 시장은 "학생들이 마약에 노출되는 문제만큼은 온 국민이 모든 힘을 기울여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직접 마약 퇴치 캠페인에 참여했고, 시에서도 교육지원청, 경찰과 협력해서 마약이 우리 청소년에게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의무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선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대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뛰기 하는 모습의 조아용도 나올 것이다. 다양한 모습의 조아용이 모이면 조아용 붐도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첨단 반도체클러스터'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삼성전자 기흥캠퍼스'가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고, 최근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용인에 '반도체 교육·산학 허브'를 설치하기로 시와 협약을 맺는 등 미래를 잘 개척해 나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의 반도체 경쟁력을 갖춘 도시가 될 것임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와 창의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하운 학생이 "학생들에게 기자라는 직업을 추천하고 싶은가?"라고 물

할 수 있도록 지원한 메디치 가문 덕분에 융합을 통한 창조가 이뤄져 르네상스가 꽃피었다.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 새로운 창조를 낳는 것을 '메디치 효과'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배우고, 여러 분야의 지식을 쌓는다면 여러분이 '메디치 효과'를 내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을 인터뷰한 강인찬 학생은 "진로에 대해 진심을 담아 격려하고, 용인특례시의 발전을 위해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이상일 시장과 직접 만난 자리가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시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 기자 경험을 들으면서 인간적으로도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범상/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전남 새마을지도자, 따뜻한 공동체 앞장 다짐

봉사 등 '보람의 현장' 시청·유공자 표창·비전 다짐 퍼포먼스

전라남도도는 20일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2023년 전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열려 해양쓰레기 수거, 우수 농수산물 홍보 등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데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사)전남새마을회 주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귀남 전남새마을회장,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새마을지도자 8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시 새마을운동, 청년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영상 상영(2023 보람의 현장), 유공자 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비전다짐 퍼포먼스, 새마을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해양쓰레기 제로화운동, 취약계층 나눔과 봉사활동 등 올 한해 새마을회의 활동을 돌이켜보는 '2023 보람의 현장' 영상을 시청하며 새마을 지도자들



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공자 시상에선 최경욱 전남새마을부녀회장이 새마을훈장을 수상한

것을 비롯 새마을포장 1명, 대통령표창 9명, 국무총리표창 7명, 도지사표창 3명 등 총 38명이 수상 영예를 안았다.

박종배/기자

남원지역 마을교육공동체 학생 맞춤형 교육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 나부터 탄소중립 실천방안 알아보기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남원시에 발맞춰 탄소중립에 대한 남원 관내 학생들의 의식과 실천을 높이기 위한 기후 위기 탄소중립 교육을 기획했다.

11월 17일 남원 관내 도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진행했다. 도동초등학교는 탄소중립에 관심이 많은 학교로 학생들이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 등 실천방안에 동참하고자 신청했다.

남원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춘향골 교육공동체 교육 활동가들이 남원시 내 학교에서 시작하여 지리산권(운봉, 인월, 아영, 산내) 학교들을 기반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크게 ▲탄소중립 개념에 대한 이해와 생활 속 탄소중립 알아보기 ▲나의 탄소발자국 알아보기(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대산쇼 새 쓰레기 매립장 현장답사로 구분되며, 우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자원(캔, 병, 종이, 비닐, 플라스틱)이 생활에서 어떻게 버려지고 처리되는지를 알아보는 이론 교육 및 현장답사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갖는다.

남원시 농촌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은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교육 및 현장답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보고 지구를 살리는 탄소중립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분리수거 등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이남출/기자



'민생안정·미래성장동력 육성' 나주시, 2024년도 본예산 9396억원 편성

유례없는 세수 감소 여파, 올해 대비 638억원 감소... 지출구조조정 단행

전라남도 나주시는 9396억원 규모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생안정, 사회약자 보호,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에 중점을 둔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사업을 설명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나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798억원, 특별회계 598억원으로 올해 예산 1조34억원과 비교해 638억원(6.4%) 감소했다.

예산 감소는 국제 수입 저조,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인해 나주시 세입 약 40%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500억원 이상 줄어든 것과 지출수입 징수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라 나주시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히 검토하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단행했다.

특히 시설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은 지연하면서 연내 완료할 수 있는 사업 위주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그간 관형적으로 지원돼왔던 지방보조금도 효과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행정 필수경비도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업무추진비를 올해 대비 20%이상 삭감하는 등 내부 자구노력을 강화했다. 각급의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은 민생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관광·에너지·교육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예산에 중점 투자했다.

나주시는 국비 지원이 없어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시상품권 발행 예산 75억원을 편성했다. 입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억원,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3000만원 등도 포함했다.

어르신 건강에 힘쓰고자 월 10만원으로 고정했던 경로당별 급식비는 인원수 등 현실 여건에 맞춰 차등 지원하고자 올해 8억원에서 내년도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동부노인복지관(구 남평재가복지회관) 증축 시설비 10억원, 분기별 2만원을 지원하는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13억원, 100세 안심경로당 180곳 운영비 1억5000만원, 종전 65세 이상에서 63세 모든 시민까지 확대한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50%)엔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사업 5억원, 전국지체장애인 체육대회 2억원,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정비에 2억원 등 사회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도 두루 책정했다.

타 지역에서 전입한 청년 근로자·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민선 8기 청년패키지 사업인 '0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은 35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 수를 올해 30호에서 내년 100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나주시 청년취업자 주거비 5000만원(20명), 출산장려금, 난임 부부 검사·시술비, 출산 전·후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에 26억원을 편성했다. 도내 최초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등 보육 인프라 예산도 빠짐없이

채겼다.

'500만 나주관광시대'를 목표로 한 관광 산업 분야엔 340억원을 배정했다. 나주시는 나주천 생태물길복원, 영산강 관광 자원화에 58억원을 나주읍성·나주목관아 정비 8억원, 남부권 관광관광사업 12억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4억원, 남도음식거리 조성 및 주차장 지원사업에 8억원 등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관광 도시 조성에도 힘썼다.

이를 통해 2025년 나주방문의 해를 내년도 선포하고 관련 예산 2억원을 반영했다.

총 1026억원 규모 농업 예산은 명품 나주배 육성 15억원, 권역별 대표 농산물 육성 18억원, 푸드 업사이클링(새활용) 및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농촌 기반인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마을(6곳) 조성에 30억원, 빈집 재생사업 1억5000만원, 농촌공간정비·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54억원, 축산 악취 개선에 19억원을 배정했다.

전년도 32명에서 올해 366명으로 10배 증가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내년도 700명 확대 도입을 목표로 농촌인력 지원에 7억2000만원을 세웠다.

미래 첨단과학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분야엔 내년도 171억원을 투자한다. 나주시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인공태양 공학 연구시설 등 대형연구시설 유치를 위해 3억원, 에너지 엑스포 개최 2억원, 공공기관 2차이전 연관산업 유치에 16억원을 편성했다.

이외 에너지 관련 사업 육성 예산은 59억원을 반영했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 컨택 에너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 사업인 빛가람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40억원, 대중교통 노선 개편 관련 30억원, 도시통합관제센터 및 악취통합관제센터 운영 42억원, 남평읍·안창동 파크골프장 조성에 24억원을 반영했다.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특색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명품교육도시 조성 시책인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중학생 꿈 이름 배움카드, 평생학습 바꾸쳐엔 총 6억7000만원을 투입한다. 또 빛가람 어린이테마파크, 배매산 사계절 꽃동산, 남평 식산 물레길, 빛가람 전망대 관람환경 개선 등엔 20억원, 교통시설을 확충 등 재난·사고 안전 분야엔 68억원을 편성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의 가치를 높이는 500만 나주관광 시대, 내일도 희망이 있는 농업, 에너지 기반 미래 첨단산업의 메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주요 시책·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회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나주시 2024년 본예산안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 본회의를 통해 결·확정될 예정이다.

김영안/기자

함평군, 암 관리 사업 최우수기관 수상

재가암환자 대상 방문건강관리, 희망디딤돌 재가모임 운영

21일 함평군은 "'2023년 광주전남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라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과 광주광역시 공동주최로 화순전남대병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올 한해 암 관리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함평군은 재가암환자 관리 사업 분야에서 지역사회 연계, 1:1 방문건강관리 등 환자에게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가암환자와 가족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신체 및 정

신의 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해 '희망디딤돌 재가모임'을 운영했으며,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암 재발 대처 능력 향상 심리 강의, 재활 운동 등 지역맞춤형 재가암 관리사업을 실시했다.

또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해 영양·건강교육·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대상자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한 영양제, 고단백식이 등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의 함평군은 "재가암환자의 활기찬 일상생활 복귀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암 조기 검진 및 치료 등 보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순천시, 청년마을 '순천맥주' 2023 관광두레 문체부장관상 수상

지역 농산물 활용 소득 증대 및 지역관광 다양화한 공로 인정

순천시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한 관광두레 전국대회에서 전남형 청년마을인 '순천맥주'가 문체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올해는 전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관광두레 PD,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유한책임회사 순천맥주'는 매실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체험행사를 통한 지역관광을 다양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주민사업체로 선정됐다.

한편, 순천맥주는 전남형 청년마을인 브롱브롱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맥주'를 통해 청년의 열정에 시동이 걸리다'라는 미션으로 지역 정착을 위해 한달 살기 프로그램, 수제맥주 원데이클래스, 비어셰어링, 소상공인과 연계 맥주 개발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남형 청년마을은 지역자원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협력해 청년 인구 유입 등 지역에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시는 브롱브롱마을(농업회사법인 순천맥주), 천천히마을(노플라스틱팩토리협동조합), 오늘도파리마을(청순농부) 등 3개소의 청년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준/기자



강진군 한국민화뮤지엄, 2023 '민화의 비상' 성료



강진군 청자촌에 있는 한국민화뮤지엄은 최근 서울 한국미술관에서 진행했던 '민화의 비상'전이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 주최 및 주관, 한국민화뮤지엄 협찬으로 열렸던 해당 특별전은 전례 없는 신선한 시도들을 통해 민화의 현대예술적인 면모를 조명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지금껏 '옛날 그림'으로만 여겨져 왔던 민화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

파하는 전시로 행사 전부터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민화의 비상'전은 한국민화뮤지엄 오슬기 관광 기획으로 2019년 시작한 시리즈 전시다. 민화의 '현대성'과 '방법론'을 실험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최초 전시인 '제1장, 민화 그리고 초현실주의'(Chapter1. Minhwa and Surrealism)는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제7관에서 8일간 6,000여 명의 관람

객을 동원하는 기록을 세웠다. 2021년의 '제2장, 민화 그리고 표현주의'(Chapter2. Minhwa and Expressionism)에 이어 2022년의 '제3장, 민화, 조선의 팝아트'(Chapter3. Minhwa, Korean Pop art) 역시 큰 호응과 함께 민화 전시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일에 막을 올린 '민화의 비상 제4장: 민화, 조선의 팝 아트'전은 개막식 당일 1,000여명이 넘는 관람객과 함께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

6일간 이어진 전시 기간 동안 참신한 기획 아이디어와 수준 높은 작품들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민화뮤지엄과 조선민화박물관 소장품 중 팝아트 표현이 관찰되는 전통민화 27점과 이 전시를 위해 공모를 통해 선정된 36인 작가의 팝 아트가 극대화된 현대민화를 함께 선보였다.

특히 현대 작가들이 '팝 아트'를 주제로 연구와 고찰을 거쳐 제작한 작품들은 지금껏 본 적 없는 신선한 시도라는 현장에서의 반응과 함께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올해의 전시 주제는 '민화, 조선의 팝 아트 II'(Chapter4. Minhwa, Korean Pop art II)로, 작년에 이어 우리 민화가 지닌 팝 아트적인 면모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전시로 기획됐다. '민화의 비상'전은 과거 1, 2회 전시에서 초현실주의 그리고 표현주의와 비슷한 표현들이 민화에 이미 존재했음을 확인했다.

그 연장선으로 작년의 3회와 올해의 4회에서는 팝 아트는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 것이라도 이와 유사한 표현들이 이미 민화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소개했다. 선조들의 전통민화 작품들과 오늘날의 현대민화 작품을 의도적으로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현대민화의 현대성을 규명하고, 동시에 서양의 영향 이전부터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시켜 왔던 여러 표현법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봤다.

주효호/기자

전북도, 소비자정책“참 잘했어요!”평가 받아

2022년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우수 지자체’선정 쾌거



전북도가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정책 위원회가 시행한 2022년 소비자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전국 17개 광

역지방자치단체가 2022년에 추진한 150개의 소비자정책 과제를 대표과제(17개)와 기본과제(133개)로 나눠 평가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가 수립한 2022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에는 1개의 대표과제와 16개의 기본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7개 '매우우수', 10개 '우수' 등 모든 지표가 '참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도는 '고질적 취약분야에 대한 법집행 및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1372 분쟁해결의 전문성

강화'등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소비자정책 기본과제들을 충실히 추진했다.

특히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수행된 기본과제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정책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관심 및 노력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았다.

그간 전북도는 소비자정책을 활발히 추진해 온 결과로 특히 고령자, 어린이, 다문화이주여성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 대상별로 인형극을 통해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순회 이동상담실 운영으로 소비자상담센터의 접근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방문·전화권유·통신판매업

등 특수거래분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감시단을 선도적으로 운영하여 22,105개소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을 인정받았다.

문성철 전북도 일자리인생경제과장은 "지역민의 소비자 권리 의식 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실시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었다"며, "내년에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적극적인 소비자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구례군,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우수상 수상

지역경제 분야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수상

전남 구례군은 11월 16일 제19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지역경제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시책을 공모·선정하고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을 매년 주최하고 있다.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 8개 분야의 우수시책을 선정하고 표창을 수여했다. 구례군은 행정안전부의 지역경제 분야에서 장관 표창을 받았다.

구례군은 2020년부터 지역 내 연간 매출 및 유동 인구 빅데이터를 매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생태관광 분야 주요 정책 결정에 반영해 왔다. 그 결과 코로나 이전(2019년) 대비 2022년에는 연간 방문객 9%, 매출액은 20% 증가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에는 첫 300리 벚꽃축제를 개최하여 3월 한 달 동안에만 전년 대비 80% 증가한 약 110만 명이 구례를 방문한 바 있다.

빅데이터 분석 결과 2022년 구례군 연간매출의 69%가 외부 생활 인구(관광객 등)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산수유·벚꽃이 피는 3~4월과 여름철 피서, 가을철 단풍 시기에 매출이 집중된 것은 봄꽃 등 자연 생태자원을 즐기려는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군은 군목인 산수유나무를 보전하기 위해 노거수 반출을 제한하고 세계농업 유산 등재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한 화업사와 함께 흥매화 사진콘텐츠 및 후계목 육성 등에 협력하고 있으며, 섬진강 사계절 꽃길 조성 등 생태관광 자원을 확충에 가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주요 정책결정이 용이해졌다"며, "우리 군을 찾는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역 내 향토 지식재산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제10회 전남 공무원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1부...우승 순천시, 준우승 해남군, 3위 목포시와 강진군

진도군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진도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제10회 전라남도 공무원 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공무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는 전남 행복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 축구 동호인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를 위해 많은 내외빈과 전남 도청을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700여 명이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1, 2, 3부로 나눠 진행된 대회의 최종 결과, ▲1부 우승 -순천시, 준우승

- 해남군, 3위 - 목포시, 강진군, ▲2부 우승 - 장흥군, 준우승 - 화순군, 3위 - 전남도청, 완도군, ▲3부 우승 - 여수시, 준우승 - 곡성군, 3위 - 고흥군, 담양군이 각각 차지했다.

공무원 축구연합회 박근희 회장은 "전라남도의 공직자 축구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대회가 선의의 경쟁으로 서로 소통하며 우의를 돈독히 다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며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우홍섭 진도군 부군수는 "예향의 고

장 진도에 오신 것을 두팔 벌려 환영한다"며 "공직자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이번 대회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안전에 유의하며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청 축구동호회는 지난 1997년에 창단돼 현재 회원수 60명으로 도지사기 1회 우승과, 준우승 1회, 연합회장기 준우승 1회 등 1부 그룹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 공무원 축구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 축구동호회의 저변확대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김영진/기자



전남 완도해역, 선박 전복 사고 발생

현장 인력 지원 등 해양오염방제 및 2차 사고예방 등 총력 대응 나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오늘 20일 오전 03시 54분 무렵 전남 완도 어룡도 인근 해상 무인도에 A호(5000톤급, 모래운반선, 13명)가 충돌 후 전복, 현장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전복 사고 현장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26척, 연안구조정 3척, 구조대, 서특대, 민간해양구조대 16척, 예인선 3척, 관공선 3척 등 총 52척이 공동 대응 중이다.

전복 선박에는 적재유 병커A 90톤,

경유 30톤, 윤활유 2000리터가 적재되어있고, 전복 시 유출된 기름 등이 섞인 오염수가 사고해점 주변으로 분포되어 해양오염방제 활동을 위해 사무실 근무자를 현장에 지원하는 등 방제 작업 중이며, 전복 선박으로부터 추가적인 기름 확산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사, 보험회사, 해경관계자 등과 협의의 안전 여건 감안 유류 이적 작업 및 인양을 검토 중이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양영욱/기자

목포시 드림스타트, 목포나들이 문화탐방 추진

취약계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과학체험마술, 영화 및 근대역사관 관람 실시

목포시 드림스타트가 지난 17일 취약계층 아동 20명을 대상으로 '드림아동과 함께하는 목포나들이 문화탐방'을 목포시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문화탐방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 건강한 정서 함양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더 마블스'영화관람을 시작으로 과학의 원리를 이용해 이색적인 실험과 체험까지 더해진 '더 사이언스'과학마술에 참여해 즐거운 한때를 보냈으며 마지막으로 문화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목포근대역사관 1관, 2관을 관람하면서 근대역사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 참가 아동은 "마술공연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

험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다. 앞으로도 새로운 마술쇼나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이번 문화탐방이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목포시 드림스타트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심리정서 지원, 가족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조성면-울산 남구 무거동 자매결연 교류 행사

보성군은 지난 17일 조성면이 자매결연도시 울산시 남구 무거동과 자매결연 교류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조성면 공직자를 비롯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원과 보성군이장단협의회 유래준 회장, 조성면민회 임욱기 회장, 조성면이장단협의회 등 25여 명이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을 방문했으며 지역 문화탐방 및 자매도시 간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보성군 조성면에서 직접 생산한 간척지 쌀과 키위 등과 같은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접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다"라고 말했다.

최경아 무거동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매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의 지역과 문화를 존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통해 함께 상생하는 무거동과 조성면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서진석 조성면장은 "이번 조성면의 무거동 방문은 보성군과 특산물 등을 알린 좋은 기회였다"라며 "오늘을 계기로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 다양한 교류 행사 등으로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해 지역 상호 간 상생 발전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자"라고 밝혔다.

한편, 조성면과 무거동은 도·농간 상호 협력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이후 보성관광지 방문, 울산고래축제 행사 참여, 울산 무거동 베스트 행정 서비스의 날 참석, 보성군 농·특산물 판매 활동 등 매년 다양하고 상호 유익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원영/기자



울산 남구 무거동 해피데이! 보성군 조성면 사랑합니다!
보성군 조성면 자매도시 울산 남구 무거동 방문
2023. 11. 17.(금) 조성면·조성면이장단협의회

경북도, '청년이 주도하는 빅블러 시대' 주제...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 개최

글로벌 석학 강연, 국내외 청년 교류 네트워킹 계기 마련



경북도는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포스도 국제관에서 국내·외 청년,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 청년 메타버스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청년이 주도하는 빅블러(Big Blur) 시대'라는 주제로 글로벌 석학의 강연을 듣고, 국내외 청년 교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메타버스가 가져올 다양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였다.

먼저, 김상균 경북대 교수는 '초인

류가 만들어 갈 메타버스 세상' 관련 기조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유전자 조작, 나노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인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며 초인류가 만들어 갈 메타버스 세상을 소개했다.

다니엘 아빌라 아리아스 BoxMagic 대표는 '다음 세대는 말로 코딩한다'는 주제로 대형 언어모델의 프로그래밍 변화 등 새로운 시대에 기계와의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했다.

'I. 메타버스를 이끌 청년에게 말하

다' 세션에서 이한진 한동대 교수는 '청년 주도의 AI 메타버스 문화예술 가이드' 사례를 통해 청년들의 문화예술 AI 메타버스 교육을 소개했다.

임정훈 딜로이트 전무는 '메타버스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발표에서 메타버스에 비즈니스 구현과 성공적인 고객 체험(Customer Experience)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II. 메타버스, 혁신을 꿈꾸다' 세션에서 임모세 샌드박스 리드는 '웹3.0, 블록체인, 오픈 메타버스 그리고 빅블러 시대'라는 주제로 인프라·플랫폼이 대중화 궤도에 올라올 경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소개했다.

미야가와 다이ске Biz Oh! 대표는 '메타버스, AI 시대에 중요한 것'이라는 사례발표에서 메타버스와 AI 활용에 있어 인간 만족과 목표 수립 간 조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영민 GBF 대표는 '메타버스, AI, 그리고 NFT' 사례에서 생성AI 캐릭터를 통한 사주 서비스 개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 NFT 캠페인 등을 소개했다.

인크바아르 몽골국립대 교수는 '디

지탈 유산: 박물관을 통해 탐구하는 메타버스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젊은 세대에게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위한 메타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유일하게 학생 발표자로 참석한 황찬우(우신중) 학생은 '우리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메타버스' 발표에서 "메타버스를 통한 문화유산 재현을 하면서 역사의 연결성과 가치의 소중함을 느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III. 빅블러 시대의 메타버스' 세션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메타버스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박정호 메타에듀시스 대표는 '메타버스, 실감형 콘텐츠의 사회문제 해결 및 적용' 발표에서 실감형 콘텐츠 기반 메타버스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일자리 감소, 교육 인프라 부족 등 경북의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청년들의 메타버스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청년 메타버스 창작 페스티벌' 우수팀 시상식이 있었다.

△'추적이는 메타버스티姆'(가상 면접체험을 위한 면접자 프로토타입 개발/ 대상/ 시상금 300만원)과 '래빗

홀티'(VR과 AI를 활용한 초등학생 영어학습 솔루션 강충영어/ 최우수상/ 시상금 200만원), '갤러리밋'(유저간 관심사 기반 AI 미술관/ 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은 청년 메타버스 콘텐트 개발 경진대회 분야에서 완성도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CNPVerse팀'(VR과 AI기술을 활용한 청년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 메타버스 구축/ 대상/ 시상금 200만원)과 '화이트타이거팀'(소외 청년을 위한 메타버스 복합문화 공간 조성/ 최우수상/ 시상금 100만원)은 청년 메타버스 정책 공모전 분야에서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행사 2일 차에는 청년 메타버스 자문단과 참석자 간 네트워킹 후 행사가 마무리됐다.

이정우 경북도 메타버스혁신과장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청년 교류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북이 메타버스 등을 지역 산업, 관광, 문화, 역사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디지털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제11회 중심상가 청소년 가요제·댄스 페스티벌 열어

경주시가 중심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오는 18일 봉황대극설무대에서 '제11회 청소년 가요제·댄스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경주중심상권리네상스사업단과 경주중심상가시장상인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청소년을 표현할 수 있는 작품, K-culture를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등록을 시작으로 가요제 및 댄스페스티벌 참가자 예심, 축하공연, 본선무대, 시상식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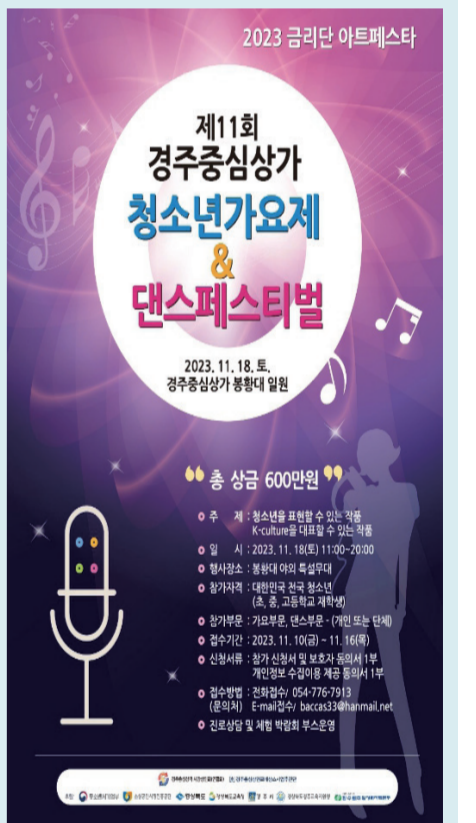
행사는 경주중심상권리네상스사업단과 아트페스타의 일함으로 청소년들의 꿈과 재능을 발산하기 위해 청소년 가요제와 댄스 경연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가요제와 댄스 부문으로 구분돼 예선과 본선을 거쳐 16팀을 선정하며, 여기에 K-pop·힙합 댄스 공연과 초청가수의 축하공연으로 행사의 즐거움을 더할 것이다.

이어 청년들을 위한 진로·체험 박람회와 상담부스도 함께 선보인다. 학생들에게 대학학, 직업 정보 등을 제공해 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고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심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상인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부산시, 국회 찾아 '한국산업은행법' 통과 촉구 나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는 오늘(21일) 오전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 명이 국회 정부위원회를 방문해 이번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역 시민단체 및 경제계에서는 박재울 지방분권균형발전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조정희 부산여성소비자연합 대표, 권명준 부산을가꾸는모임 대표를 비롯해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부울지역본부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오늘(21일) 오전 10시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심사에 앞서, 정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 조속한 법안 심사와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부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은 오전 9시 30분부터 국회 정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 및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피켓을 들고 회의

실로 입장하는 정부위원회 위원들에게 조속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촉구했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2022년 5월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후 2023년 5월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사실상 '한국산업은행법' 소재지 조항 개정만이 마지막으로 남은 상황이다.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위해 현재 4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1월 상임위원회인 정부위원회에서 개정법률안 심사가 보류된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그간 부산시에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관·정 협력 전담팀(TF)을 발족, 3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여론 조성, 국회 설득 등 현안 해결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성권 경제부시장도 여러 차례 국회를 방문해 양당 원내대표, 정부위원회 양당 간사 등을 만나 산업은행 이전 당위성 설명 및 조

속한 법안 통과 요청 등 국회 설득에 총력을 다해왔다.

지역 경제계 및 시민단체에서도 민간 협의체인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공동성명, 기자회견, 국회 설득 등 지역사회 열망을 전달하는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에서는 어제(20일) 오전 11시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국회 정부위원회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나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 중 하나이다"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수도권 일극주의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균형발전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꼭 필요한 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태/기자

대구 남구, 남구청장과 함께 전체 사회복지공무원 결의다져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5일,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동절기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고, 구청장과 사회복지공무원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주최로 열린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남구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에 근무하는 남구 전체 사회복지공무원 108명이 참석하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의 고독사 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동절기 적극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더 나은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공무원이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특히, 최근 노인 및 1인 가구 등 취약계층 및 고독사 증가와 이에 따른 새로운 복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복지 관련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사회복지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주민서비스 실천을 위한 방안'에 대해 남구청장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했다.

남구청은 이를 위해, 앞서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주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 방안'과 '사회복지 업무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전체 사회복지공무원들에게 의견접수와 각 부서별 간담회도 함께 실시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만큼 우리 주민들이 행복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주민서비스와 복지업무환경 개선의견 등에 대해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일선 복지공무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청송군,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청송미래농업 혁신포럼 성료"



청송군은 지난 11월 17일 청송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청송군농업인단체협의회 주최로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날로, 이날 행사에는 윤경희 청송군수와 권태준 청송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각급 기관 단체장 및 농업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행사를 이뤘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1부 행사에서는 송암 김인환상을 비롯한 도지사, 국회의원, 군수 표창 등 9개 부문 15명의 농업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등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가졌으며, 오후에는 2부 행사로 "청송미래농업 혁신포럼"이 이어졌다.

'청송농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윤경희 군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윤종록 전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민승규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윤태명 경북대학교 사과연구소장, 청송농협 김중두 조합장의 주제발표 후 김병원 (사)한국생명과학기술연구원 회장이 좌장을 맡아 청송농업전반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올해 이상저온과 우박 등 자연재해와 농자재 가격 상승 및 세계경제 불안정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 주신 농업인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청송농업 혁신포럼을 통해 청송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라며,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미래 농촌 실현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제31회 일월산맥전 '내 마음의窓' 영양개최

영양군에서는 영양미술협회 주관으로 제31회 일월산맥전을 11월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영양문화원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31번째로 개최하는 일월산맥전은 영양 출신 미술인들의 작품으로 매년 미술전시회를 열고 있으며, 지역의 예술문화를 대표하고 문화예술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활동 화가 및 출향 화가의 회화, 서예, 도예 등 60점 내외가 전시되며, 전시문화가 부족한 영양군의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손경수 영양미술협회장은 "매년 주옥같은 작품을 출품해주시는 향토작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전시회에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일월산맥전이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영양미술협회 손경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출향 미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지역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이 영양미술인들의 혼이 담긴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또 다른 매력을 엿볼 수 있는 우리 영양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내 마음의窓
第31回 日月山脈展

2023년 11월 20일(월) - 29일(수)
영양문화원전시실

초대일시 | 2023년 11월 20일(월) 오후 6시 (영양문화원전시실)
주최 | 영양미술협회 후원 | 영양군, 영양문화원, 영양문인협회, 한국미술협회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 토크콘서트 '나만 몰랐던 세금 이야기' 개최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참여소통분과는 지난 1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에게 꼭 필요한 나만 몰랐던 세금 이야기'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올해 7월 19일부터 49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들의 군정 참여 소통 채널로, 현재 36명의 지역 청년이 '참여소통', '일자

리', '복지', '주거문화' 4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문호민 세무사를 멘토로 초청해 청년 관심 사안에 대해 청년 스스로가 조사하고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추진한 행사로, 일요일임에도 지역 청년 50여 명이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받았다. 또한 행사를 주관한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 참여·소통분과는 청년들의 정보공유와 소통을 위해 '울진 1949'라는 SNS 계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 청년들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 청년들의 능동적 역할과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이다"며 "군정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주시, 투어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 마무리

6월부터 총 3회 진행...영주의 '음식', '자연경관', '역사' 알러

영주시는 18일, 3회차 투어인 '영주 역사 교과서 여행'을 끝으로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을 마무리했다.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은 지역 학생들에게 영주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일깨워주고,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며 새로운 영주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세 가지 각기 다른 투어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지난 6월 진행된 1회차 '영주 맛보감 나들이'는 지역의 외국인 대학생들을 위한 영주의 맛과 미를 찾는 여행이었다. 영주 전통시장과 선비촌 등을 관람하며 목 샐러드, 청국장, 감주(식혜) 등 지역의 별미를 맛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10월 진행된 2회차 '가을 축제 나들이'는 7개 국적의 외국인이 참가해 선비촌과 선비세상에서 한복체험, 한과만들기 체험, 강강술래 등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3회차 '영주 역사 교과서 여행'에서는 지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역사교과



서에 나온 영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마애여래삼존상 및 여래좌상을 시작으로 한절마 고택, 삼판서 고택, 근대역사문화거리까지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걸으면서 그 시대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었다.

정교완 관광개발단장은 "이번 선비고을 나들이 체험이 지역의 우수한 관광 콘텐츠를 알리고 음식 관광의 경쟁력도 가늠할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예천군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일자리 사업참여로 장애인자립의 밑거름이 되도록

장애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내용

- 1.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2.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
- 3.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 4.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

신청방법

신청처

문의처

예천군은 11월 22일부터 12월 4일까지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제공을 위해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 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 3개 분야에 총 80명을 모집하며, 대상은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판례 미취업 장애인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국민건강 직장가입자 또는 장애인일자리사업 2년 연속 참여한장애인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신청할 수 없다.

2024년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단체 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행정업무 보조, 환경정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요양보호사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황숙자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지원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에서 불편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정책자문위원회 동행

도정 핵심 시책 공유하고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정책 자문 이어져

경북도는 11월 20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이철우 도지사, 배한철 도의회의장, 박성진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도 실·국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총회를 개최했다.

강상기 정책기획관이 '민선8기 1년 도정 성과와 향후 3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한 후,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지방시대! 경북 도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정책 토크콘서트도 진행됐다.

이철우 지사는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의 판을 완전히 바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 분야별 전문가인 위원들이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경북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민선

8기 들어 경북의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가 확대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대한민국의 판을 바꾸겠다는 도정 철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회답했다.

경북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를 10개 분과로 구분해 위촉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을 통해 도정을 연구 중심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19년부터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 최대 자문 위원회로, 올해 5월 새롭게 구성된 제3기 위원회는 172명 규모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향후 2년간 기획행정혁신분과, 지방시대정책분과 등 10개 분과로 나눠 도정 정책 자문과 아이디어 발굴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전국 및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시상식 4명 수상 영예

국회교육위원장상 1명, 도지사상 1명, 도교육감상 1명,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원장상 1명 수상



안동시는 2023년 전국 및 경상북도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안동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의 △김남출(여·82) △조태숙(여·69) △유영선(여·86) 학생과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의 △배후석(여·76) 학생까지 총 4명의 학생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김남출(모두 이름이 있네)어르신은 전국성인문해 시화전에서 글아름상(국회교육위원장)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성인문해 시화전에서는 조태숙(두 갈래길)어르신이 대상(도지사상)을 수상했다. 유영선(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어르신이 특별상(도교육감상), 배후석(멋쟁이 할머니의 꿈)어르신이 최우수상(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원장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수상작 4편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기쁨과 열정이 솔직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다. 김남출 어르신은 '모두 이름이 있네' 작품을 글에 배우고 난 후에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깨달음을 담고 있다. 조태숙 어르신은 '두 갈래길' 작품에서 일과 공부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선생님 모습이 눈에 밝혀 학교에 간다며 학업의지를 표현했다. 유영선 어르신은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어요' 작품에서 배움을 콩나물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길 희망하는 마음을 전했다. 배후석 어르신은 '멋쟁이 할머니의 꿈'에서 글을 배워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혀 책을

읽어주는 멋쟁이 할머니가 되길 소망한다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했다.

한편, 안동시는 읍·면 지역의 비문해 성인을 위한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과 가정방문형 한글교실, 용성평생교육원, 마리스타학교,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450여 명의 비문해자들에게 한글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어르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학습에 대한 기쁨과 열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제38회 봉화군수기 축구대회 '성료'

읍면부, 직장부 총 10팀 200여 명 선수 참가, 읍면부 춘양면 우승의 영광

제38회 봉화군수기 축구대회가 지난 18일 봉화군 공설운동장, 복합스포츠타단지 보조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읍면부 결승전은 춘양면이 봉화읍과 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 4로 승리해 우승팀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결과는 읍면부에서는 우승 춘양면, 준우승 봉화읍, 공동 3위 명호면, 봉성면, 직장단체부에서는 우승 봉화소방서, 준우승 백두대간수목원이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

크)제로 진행됐고 준결승 및 결승전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읍면부 결승전은 춘양면이 봉화읍과 1대 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5대 4로 승리해 우승팀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결과는 읍면부에서는 우승 춘양면, 준우승 봉화읍, 공동 3위 명호면, 봉성면, 직장단체부에서는 우승 봉화소방서, 준우승 백두대간수목원이 차지했으며,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

상은 춘양면 이훈 선수와 봉화소방서 강창주 선수가 수상하는 영예를 안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 벌써 38회째를 맞이하는 군수기 축구대회를 통해 동호인간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 여러분들이 대회를 치르는 동안 부상 없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사라져가는 영덕 해녀의 숨결, 연희극에 담다 동해안 해녀 소재 두 번째 극 '숨비 - 바다' 개최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예주문화예술회관 상주단체인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의 창작 연희극 '숨비-바다'를 11월 24일 영덕무형문화재전수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고 전했다.

흔히 '해녀'하면 대부분 제주 또는 남해안을 생각하지만 해양수산부 통계(2017년 기준)에 따르면 전국에서 해녀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도(3천985명), 두 번째가 경북(1천593명)이다. 하지만 동해안 해녀는 고령화로 인해 그 수가 점점 줄고 있

는 것이 현실이다. 창작연희극 '숨비-바다'는 소멸해 가는 동해안 특히 영덕의 해녀 문화를 되살리고 보존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작됐다.

이번 극은 영덕 속산리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영덕 해녀들의 애환을 그린 2022년 작품 '바다의 딸 해녀'를 토대로 고선평 연출가의 섬세한 연출, 박지명 작곡가의 창작곡이 더해져서 업그레이드 판으로 완성됐다.

창작연희극 '숨비-바다'의 줄거리는 바

다에서 잔뼈가 굵은 나이 든 해녀 규석과 젊은 해녀 선희, 남자로 물질을 시작하려는 해남 준식과 아들의 선택을 반대하는 모친까지, 갈등과 도전, 해녀의 명맥을 이으려는 노력, 그리고 바닷가 여인들의 거친 삶과 고민이 싸줄 날줄로 촘촘히 담겨있다. 또 '숨비-바다'는 춤과 노래가 이어지는 연희극이지만 관객과 소통하는 예능 방식을 취해 관객이 지역 문화와 다양한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극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은 2008년 설립해 지역의 역사와 지역민의 이야기를 주제로 지역 특화 콘텐츠를 창작하고, 전통춤 공연을 기획 공연하는 전문연희단체이다.

특히 이번 공연 '숨비-바다'는 경북문화재단의 도비 지원사업이다. 지역 공연장을 거점으로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예주문화예술회관과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은 작년에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이'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전통연희컴퍼니[예심]'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지역민 대상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해 군민 단단의 기쁨을 만들었고, 전통무용 등 예술 교육과 함께 '숨비-바다'와 같이 지역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창작 활동으로, 사라져가는 지역문화를 발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숨비-바다' 공연 담당자는 "차가운 날씨를 잠시 잊을 만큼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공연을 준비했다"며 관객에게 훈훈한 문화체험을 약속했다.

11월 24일 저녁 7시에 막 올리는 창작 연희극 '숨비-바다'는 8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러닝타임은 90분이다.

장문화/기자

경북도, 11월 21일 독도대첩 기념행사 개최

69년 전 독도 바다는 33인의 청년이 지켰다!

경북도는 21일 독도대첩일을 맞아 울릉군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냈다.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이라는 주제로 울릉군, 동아일보,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푸른울릉도독도가꾸기모임, 울릉군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대첩 기념행사'를 열었다.

69년 전 11월 21일은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 해상보안청의 독도 침탈로부터 독도 수호를 위한 6차례 전투 중 가장 격렬한 사투를 벌여 완벽한 승리를 거둔 날이다.

독도의용수비대 33인의 국토수호 정신이야말로 우리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의병정신'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독도대첩 기념행사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해 헌신한 독도의용수비



대의 영령을 기리고,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독도의용수비대 영령 추모식을 개최했다. 또 울릉군 장흥농악단 길놀이 공연, 윤근수/기자

아랑고고장구 공연단, 울릉독도난타공연, 울릉도 아리랑 등 풍성한 개막공연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가득 마련했다.

특히, 독도대첩 기념행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독도재단 채널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유가족 중심의 추모식을 울릉군민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독도의용수비대가 아직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라며, "독도대첩 기념행사를 통해 국토수호 정신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온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일본의 독도 침략 야욕을 꺾고 독도 수호 의지를 후세 만대까지 항구적으로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사랑 담긴 김치로 소외된 이웃 마음 채운다! 이강덕 포항시장, 봉사자 격려

포항시새마을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포항시새마을회가 주최하고 포항시새마을부녀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포항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해 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김장을 시작하고 이웃에게 전달하는 모든 과정에 담아준 온

정으로 나눔 문화가 지역에 확산되고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 담그기&나눔' 행사는 지난 20일에는 절임 수조 및 각종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김장 버무리기 및 포장·전달을 진행하게 된다.

4일간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김장 김치 400박스는 각종 복지시설로, 나머지 분량은 읍면동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윤타용/기자



구미시, 낙동강변 인조 잔디구장 조성한다

내년 4월, 전국대회 가능한 공인규격 야구장 3면 개장

구미시는 구미대교 아래 낙동강 변에 전국대회가 가능한 공인 규격의 인조 잔디 야구장(3면)을 11월 착공해 내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4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부지면적 약 3만 6천㎡의 기존 흙 구장에 인조 잔디, 펜스, 더그아웃, 본부석 등을 공인 규격에 따라 설치하며,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한 최고의 구장으로 조성한다.

또한, 내년에는 지산 낙동강 체육공원에 인조 잔디 야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구미시는 강변 야구장과 함께 총 4면의 정규 공인 규격의 야구장으로 각종 전국 단위 대회 유치에 노력을 기울인다.

현재 야구 연습장이 없어 인근 시군으로 훈련을 가고 있는 도개고 야구부에 강변 야구장 1면을 우선 배정해 야구부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공인 야구장 조성으로 도내, 전국 단위의 야구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구미 위상을 널리 알리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문경시, 드라마 온 잇 비즈매칭 행사 성황리 종료

11월 9일부터 2일간 드라마 제작사,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명 방

문경시는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10일까지 1박 2일간 문경 페트로 호텔에서 드라마 제작사, 지자체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드라마 온 잇 비즈매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경시가 주최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 (주)아리씨가 주관한 행사로 ▲ 드라마 콘텐츠 트렌드 등 세션별 세미나 운영 ▲ 드라마 제작사 극본 피칭 및 지자체 관계자와 비즈니스 매칭 ▲ 주요 관광지 및 익스트림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의 상생을 위하여 드라마 제작사와 지자체 간 소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경시는 영화·드라마 촬영하기 좋은 도시로서 제작 지원 등 촬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지역별 전기요금 체계 개선' 공론화 위한 토론회 개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시민 이해 돕고, 차등제의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 모색

부산시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전기요금 차등제 바로알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차등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는 '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2024년 6월 14일 시행)으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세부 실행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시대 에너지 분권정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실현'을 주제로, '발전·송전지역 피해를 고려한 전기요금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청중 질의·답변 등으로 진행된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박광수 선임연구위원이 '국내 전기요금 현황과 개선방향'을, 부산연구원 남호석 연구위원이 '특별법의 개요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석지만 부산상공회의소 차장, 유재국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근재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임말숙 시의원과 주제발표에 관한 토론을 한 다음, 청중과 질의·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석해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

시는 부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공급시설, 송전탑, 송전선로 등 건설로 무·무형의 위험성, 환경피해 등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함에도 국내 전기요금은 단일체로서 지역 간의 차별성이 없어 전력 생산지역과 소비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부산 등 원전 밀집지역은 원전 운영에 대한 안전 문제까지 더해져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하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관계부처 등에 전달해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원전 소재 지역 시·도와의 연계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현실화되면 전력사용이 많은 기업의 지역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202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제전' 개최

시 무형문화재의 공연과 전시 등 다채로운 축제의 장 펼쳐져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보유자와 전수자들의 작품 전시와 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2023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제전'이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11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6일간 개최된다.

시 무형문화재 대고장, 단청장, 모필장, 장호장과 국가무형문화재인 조

각장, 소목장, 기능 6종목의 작품을 11월 21일부터 26일(일)까지 6일간 대구문화예술회관 3, 4, 5 전시실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매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한 종목마다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각 종목 보유자는 직접 제작과정을 설명하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무형문화재 개인 예능 종목에 대한 공연은 11월 25일, 11월 26일 2일간, 오후 3시부터 대구문화예술회관 비홀에서 진행된다. 11월

25일에는 판소리(심청가), 영제시조, 살풀이 종목의 공연이, 11월 26일에는 가곡, 수건춤, 판소리(흥보가), 동부민요의 다채로운 무형문화재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2023년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제전의 상세한 일정은 대구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경선 대구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무형문화재제전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대구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품격 있는 작품과 혼이 담긴 생생한 무대를 가까이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 애써 주시는 전수자들의 열정과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행사 성황리 종료

의성군은 '방방곡곡 문화예술극장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기움아재와 함께 한판 놀아봅시다!'를 11월 15일 '안평면 박곡3리'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사업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상반기 4곳(신평면, 옥산면, 안산면, 다인면)에 이어 하반기에도 4곳(단촌면, 가음면, 비안면, 안평면)의 어르신들 찾아가는 문화예술극장'은 문화예술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문화소외지역의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TCB 상상 고향별곡'에서 '기움아재'로 불리며 활동 중인 방송인 한기웅씨와 풍물패 '노리광대'와 색소폰연주자 김민제의 색소폰 연주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지난한 세월 살

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었다.

박곡3리 송선용 이장은 "마을 어르신들과 즐겁고 신명나는 시간을 함께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곳곳의 어르신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제공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매회 방문현장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을 담아냈으며 향후 쇼트 영상 등 행사결과를 영상자료화 하여 향후 의성군 공식 유튜브 채널 업로드 및 지자체 우수 문화사업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지리적 여건 등으로 문화소외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을 찾아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눈길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을 위한 '23/24년 서초구 제설대책 현장훈련 실시

제설대책 현황 설명 및 제설작업 안전교육



서울 서초구가 겨울철을 맞이하여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선제적이고 신속한 제설대응체계 구축으로 제설대책본부(24시간)를 운영한다.

구는 14일 상당역 빗물저류조에서 구청, 유관기관(군·경), 외부업체(제설차량·장비) 등 관계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설대책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을 통해 강설 시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인력·장비 지원 등 상시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 및 신속한 제설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제설대상으로는 주요 간선·보조간선도로, 이면도로 고갯길 등 취약구간,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주변으로 취약 및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자재와 제설인력 확보, 장비운영에 따른 제설차량, 살포기, 삽날 등 제설장비 8종 230대 작동여부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 완료한 상태다.

제설제 확보량도 서울시 기준 대비 2,152톤 보다 많은 2,469톤을 비축

하고, 최근 친환경 제설제 사용비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시설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고갯길·급경사지 등 취약구간에 자동제설 시설인 자동염수분사장치를 9개소→12개소로, 도로열선 설치는 13개소→20개소로 추가 확대하여 초동 제설대응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소형 제설기(보도용) 확대(23대)로 보행자 낙상사고 예방 등 안전대책을 강화했으며, 마을버스회사(4개사)에 제설 살포기를 무료로 대여함으로써 취약노선 중심으로 제설역량을 증대하여 차량운행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동참 '내집, 내점포 앞 눈치우기', 강설시 주민 행동요령, 제설차 길터주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함께 눈을 치우는 제설작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강설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상상황을 항상 주의깊게 모니터링 하고, 신속한 초동제설로 교통운영 및 주민보행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홍수/기자

금천구, 청소년을 위한 계속되는 기부행렬

(주)에이비제약, 금천구립여성합창단에서 장학금 기탁



금천구에서는 추운 날씨 속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금천구는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사 용해 달려 (주)에이비제약(대표 김을형)에서 장학금 500만 원, 금천구립

여성합창단(회장 김미정)에서 장학금 300만 원을 (재)금천미래장학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에이비제약은 금천구 소재 기업으로, 코로나19, 말라리아 등 진단 시약을 납품하는 기업이다. 김을형 대표는 2007년부터 금천구 소식지 '금천향기'

편집위원으로 꾸준히 활동 해오고 있으며, 한부모가족, 불우한 청년들에게 무료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주)에이비제약 김을형 대표는 "비록 거추차기 금천구가 아니지만 금천구에 각별한 관심이 있다"라며, "가난이 학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금천구립여성합창단은 1995년 창단된 금천구 대표 여성합창단이다. 매년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각종 대회 및 공연을 통해 금천구를 널리 알리고 있다. 11월 25일 금나래아트홀에서 정기연주회 '인생은 아름다워'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천구립여성합창단 김미정 회장은 "이번 장학금은 '광주빛고를 전국합창단경연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로 마련했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는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금천구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을 기탁해 준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배움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울 중구, 공동주택 대상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 실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80여 명 대상 갈등관리 교육 진행

서울 중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 8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무관리대상 및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9개소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권역별로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내 이웃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리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관리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갈등에 대한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증감소음, 흡연, 반려동물 관련 민원 등 공동주택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소개했다. 특히,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법 등 공동주택 관리자가 주민 간의 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리사무소장은 "그



동안 갈등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입주자들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교육을 통해 대화와 공감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현장에서도 꼭 적용해 볼 계획이다"라며 높은 만족을 보였다.

구는 내년에는 개별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주제를 선정하여 해당

공동주택에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맞춤형 갈등관리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중재자로서 관리자의 역할이 발휘된다면, 이웃간 화목한 살기 좋은 동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영등포에서 만나는 진로 여행...영등포구, 첫 '진로탐색 페어' 개최

영등포구가 22일부터 24일까지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인 하자센터(영등포동 소재)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진로탐색 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진로탐색 페어'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지난날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고자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로탐색 페어'를 위한 상호 협력, 진로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에 함께 뜻을 모은 바 있다.

구는 '나만의 진로 여정'이라는 스토리 아래 '모험', '발견', '탐색'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축제를 꾸렸다. 구는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고 설계하는 과정을 마치 여행처럼 즐길 수 있도록 축제가 열리는 하자센터 본관 및 신관의 모든 층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첫 번째 테마인 '모험'에서는 4차 산업의 미래 유망 직업과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AI) 축구 로봇, 가상세계(VR), 드론 등 첨단기술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발탁출 게임 ▲조향사, 웹툰, 특수분장, 이미지메이킹 등 이색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발견'에서는 대형 엘디(LED)를 활용한 미디어 아트, 가상현실에 구현한 드로잉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술작품 등의 첨단 기술과 예술이 만들어낸 융합전시가 펼쳐진다. 또한 미래 유망 직업인 정보보안전문가(화이트해커), 미디어 아티스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인터뷰를 만나볼 수 있는 '진로 시네마'를 통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직업을 상상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구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기후, 환경 분야의 녹색직업도 접할 수 있도록 사회 가치 경영 등(ESG) 전시와 탄소중립버스도 준비했다.

마지막 '탐색'에서는 전문 직업인이 진로 고민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사람책'이 마련되어 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해당 분야 전문가의 생생한 직무 현장 이야기와 진로 설계 경험을 들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에게 이번 축제가 재미있고 설레는 여행처럼 다가갈 수 있도록 특별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항공권티켓으로 된 입장권에 각 테마별 체험을 마치고 스탬프를 획득하면 특별한 경품을 선사한다.

박황신/기자



경북의심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대위, 각 정당 강원도당 방문 “22대총선 강원공약 건의문 전달”

도정 핵심 시책 공유하고 지방시대 성공을 위한 정책 자문 이어져

소양강댐 피해지역 공동대책위원회(박기영 위원장, 엄윤순 부위원장)는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정의당,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강원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확보 법제화를 위한 총선공약 반영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오전 10시경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는 김철빈 사무처장, 허소영 대변인이 환대를 해주면서 “공대위의 제안을 환영하며 함께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관련 시·군 지역위원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당 정책연구소인 강원해파랑연구소(소장 이기원)에 적극 제안하여 강원지역 총선공약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위원장은 “피해지역 주민들

에 대한 보상을 넘어서 법적·제도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방문한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는 윤민섭 도당위원장이 직접 맞이하며 “지금까지 공대위의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좋은 제안과 건의에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향후 지역현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 하겠고 총선공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위원장은 “강원도 내 시군 뿐만 아니라 충주시, 충청북도와의 연대도 추진할 것이고 향후 총선후보자들에게도 동의서명을 받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 김도윤 사무부처장은 “언제 오시나 하고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50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도당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오늘 주신



건의문을 총선기획단과 총선공약개발단에 잘 전달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위원장은 “의회 의원들과 함께 지자체장인 시장군수가 함께 나서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

박위원장은 “우리의 건의문에는 총선공약에 반영할 문구로 ‘과거 50년의 희생을, 미래 50년의 희망으로! 강원도의 소중한 자산, 소양강댐 주권 확보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산시 "고품격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

21일, 김문수 아산시 도시개발국장 시정 브리핑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충남 아산시가 문화·여가·복지 인프라가 어우러진 고품격 스마트 도시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은 21일 정기브리핑에서 “아산시는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저성장으로 인한 인구감소 속에서도 꾸준히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라면서 “중부권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아산시에 도시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시 도시개발국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계획을 소개했다.

우선 시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수립·추진 해온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을 지난 8월 충청남도로부터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미래 개발물량 확보와 도시공간구조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은 ‘자연과 문화, 경제가 공존하는 상생·온후(溫休)도시 아산’을 도시 미래상으로 하고, ‘웰빙문화도시·스마트경제도시·위드상생도시’를 3대 목표로 설정했다. 계획 수립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51명의 시민계획단이 참여했다.

김문수 국장은 “도시공간 구조를 1도심(온양1-6동)-3부도심(아산신도시, 둔포, 신창.도교)-2지역중심(인주, 송악)으로 개편하고, 각 지역 연계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거점 생활시설의 집중 설치·복합화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2040 아산도시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 되면 그간 개발물량 부족으로 제한됐던 지역 대규모 개발사업도 다시 활기를 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스마트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아산시에는 현재 시 자체 사업 3개 지구(1.85km², 13,535세대), LH 사업 1개 지구(3.57km², 22,000세대), 민간 15개 지구(5.00km², 47,345세대) 등 총 19개 지구(면적 10.42km², 82,880세대)의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모중셋들지구는 2023년 3월 환지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지장물에 대한 협의의 보상이 진행 중이며, 2023년 1

월 도시개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된 풍기역 지구는 2024년 착공될 예정이다.

또,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0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2024년 조사설계계약, 2026년 착공,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유일하게 신도시급으로 추진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1월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으며 2024년 상반기 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며, 민간 도시개발사업은 온양동 일원, 배방과 탕정을 중심으로 15개 지구가 관련 절차를 이행 중이다.

김 국장은 “현재 아산시 곳곳에서 공공과 민간에서 준비 중인 도시개발사업이 많이 있다”면서 “우리 시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도시공간 마련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문화·여가·복지가 담보되는 기반 시설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공 품질”이라고 강조하고 “아산시는 관내에서 진행되는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공사관계자와 정기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 지하층 철근배근 완료 후부터 주택건설사업자·시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또, 인구증가 및 도시지역 확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가·복지·문화 수요 대비를 위해 △배방읍: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월천도서관, 장재국민체육센터, 동부권노인복지관 △음봉면: 음봉복합문화센터 △둔포면: 둔포국민체육센터·시민·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또, 인구증가 및 도시지역 확장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여가·복지·문화 수요 대비를 위해 △배방읍: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월천도서관, 장재국민체육센터, 동부권노인복지관 △음봉면: 음봉복합문화센터 △둔포면: 둔포국민체육센터, 북부권키즈엔터테인먼트, 청소년문화의집 △신창면: 서부권 공공도서관 △온양동: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 △모중동: 모중복합커뮤니티센터, 문예회관,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렸다.

김문수 국장은 “도시개발국은 도시발전과 시민 문화와 여가, 복지 실현을 위한 최일선 부서”라면서 “대한민국 중부권 새로운 성장거점, 고품격 스마트도시 아트밸리 아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브리핑을 마쳤다.

이동원/기자

충남도,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 한마음 한뜻

도, 9500억 규모 무기발광디스플레이 예타 대응 및 지역산업 육성 기대

충남도가 9500억원이 투입되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의 내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21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홍 지사와 박경규 아산시장, 신용진 한국광기술원장이 ‘한국광기술원(KOPTI) 충남 분원 설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각 기관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의 육성·발전 등을 위해 분원을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분원은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관련 사업 예타 대상지인 아산시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내에 1본부, 3센터 규모로 설치되며, 총 60명(연구개발 40명, 행정·지원 20명)이 근무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지역전략(특화) 산업 연구개발, 유망기술 보급·확산 및 활용, 지역 기업에 대한 시험평가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이다.

도는 분원이 계획대로 문을 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제 대응과 내도체, 광학 등 신산업 육성,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집적지구 조성 사업 추진 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에 2032년까지 기술개발 7905억원, 기반시



설 1595억원 등 역대 비사회간접자본(SOC)사업 최대 규모인 9500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중 국비 규모는 7001억원에 달한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는 산소 및 수분에 취약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단점을 보완하고, 태양광 환경에서도 높은 신뢰성과 고휘도 및 장수명을 구현해 기존 유기발광다이오드의 한계를 뛰어넘는 나노 크기의 세계 최고 신기술이다.

김태홍 지사는 “충남은 전세계 디스플레이 매출의 20%를 담당하고, 유기발광다이오드의 경우 매출액이 세계 1위 수준으로 디스플레이 메카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서도 관련 분야 초격차 우위를 위해 4조 1000억원을 투자해 8.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스플레이 분야 선두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광기술원 분원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예타 대응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 분원이 2028년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에 분원을 두고 있는 한국광기술원은 우리나라 대표 빛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1년 설립 이래 원천연구, 인프라 구축, 광융합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을 선도 중이다.

최정근/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리셋팅’ 필요하다”

확대간부회의서 AI·e스포츠 등 시대 변화에 빠른 적응 요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충북은 ‘리셋팅’이 필요합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도청 공무원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서울에서 롤드컵 결승전이 치러지고 세계가 집중하는데, 도지사인 나도 잘 몰랐고, 충북 산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AI 시대가 열리고, 메타버스 플

랫폼이 확대되는데 충북은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e스포츠, AI, 메타버스 등 지금 젊은이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리셋팅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같이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발맞춰 나갈 때 ‘왜 충북을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왜 충북에 투자를 하고

관광을 가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시대에 맞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양어선 수조의 참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넣는 ‘메기’의 예를 들면서 “도지사가 수조의 메기가 되어 충북의 리셋팅에 앞장서겠다”며 “충북이 약자지컬하고 논란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펼쳐질 때 변화할 수 있다. 공무원들도 발랄하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김원호/기자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성남시 교류 워크숍' 개최

원주시는 지난 18일 남산골문화센터와 성남시 일대에서 지역 간 청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성남시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은 남산골문화센터에서 김해 청년정책협의회 김솔 위원장의 초청 강연을 통해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활동 비전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오후에는 성남시로 이동해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청년이룸) 현장 견학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 홀에서 지자체별 활동 공유회에 참석했다.

원주시, 성남시, 서울시, 이천시, 시흥시, 파주시, 의왕시 등 총 7개 지자체가 한자리에 모인 지자체별 활동 공유회에서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올해 첫 발대식부터 청년 축제까지 그동안 활동한 내용을 정리하여 홍보영상과 함께 발표했다.

정희환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

원장은 “타지역 네트워크와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원주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점검해보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빈대 발생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기간 운영

2023.11.9. 발생관리팀

! 빈대를 예방하려면...

숙박업소 방문 즉시, 빈대가 숨어 있는 공간 확인
(침대, 매트리스, 소파 등 틈새, 벽면과 맞닿는 부분)

빈대가 보이지 않는 경우에도 방 바닥 또는 침대에 침보관 지양

여행 중 빈대에 경감이 있으면, 여행용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 필요

- 여행 가방 및 소지품은 비닐백에 밀봉하여 보관, 빈대의 유입 차단
- 객실 내 빈대가 확인된 경우, 관리자를 호출하여 상황을 알린 뒤 새로운 객실 요청
- 여행 복귀 시, 여행 가방은 침실과 격리된 장소에 보관

67

태백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현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선제적 차단 관리에 나섰다.

시는 오는 12월 8일까지 4주간 빈대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숙박시설 등 빈대 발생 우려가 시설을 대상으로 관리부서와 보건소가 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빈대 방제 및 예방법 등을 포함한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고 있다.

빈대는 약 5~6mm 정도 크기에 상하가 납작하게 눌린 진한 갈색의 난형이며, 주간에는 가구나 침실 벽의 틈, 벽지 틈에 숨어있다가 야간에 수면 중

인 사람을 흡혈하며 저녁보다는 이른 새벽에 더 활발히 활동한다.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으나 가려움증을 유발, 이차적 피부감염을 발생시킨다. 빈대를 확인하는 방법은 팔, 다리 등 노출부위에 연달아 물린 자국이 생기거나, 적갈색 배설물 또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태백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을 방문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옷이나 침구류 등에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며, “빈대가 발견될 때에는 태백시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서울시, 한파 대비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 시행

#거리 노숙인 병원 연계 사례
김OO(여, 65세)는 19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가서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정신질환과 범죄 피해로 생활이 어려워져 2023년 한국으로 귀국한 뒤 서울, 경기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게 됐다. 2023년 10월 OO종합지원센터에서 거리상담을 진행하던 중 정신질환,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김OO님이 거리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병원으로 연계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김OO님은 매우 감사해하고 있다고 상담사가 전했다.

서울시는 추위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15일부터 2024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대비 노숙인·쪽방주민 겨울철 특별보호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노숙인 응급 잠자리 675개 마련, 거리 노숙인·쪽방촌 현장 상담반 124명 편성 운영, 중증질환자 328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175명, 쪽방주민 153명),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식료품 및 방한용품 제공, 노숙인 시설·쪽방촌 화재 예방관리 등이다.

시는 20일,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숙인·쪽방주민 한파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보호대책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등, 한파대비에 만전을 기했다.

시는 추위에 특히 취약한 거리 노숙인의 안전을 위해 한파특보시 거리 상담반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우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노숙인 밀집지역과 산재지역을 구분해서 거리 상담반을 운영하며, 상담반은 평시에는 50명이, 한파특보시에는 124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쪽방촌 또한 15개반 30명이 주야간 순찰반을 편성하여 매일 1회 이상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갑작스런 한파로 인한 동사 위험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 잠자리도 마련했다. 기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응급구호시설(675명)로 사용하고 고시원 등을 활용하여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을 운영한다.

시는 특히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을 따로 분류하여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거리노숙인과 쪽방주민 중 고령이나 중증질환 등을 가진 328명(거리노숙인 175명, 쪽방주민 153명)명에 대해, 이들의 건강정보 등을 시설·상담원 간 상호공유하고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하게 된다.

10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지에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175명으로 여러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를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상시 순찰과 상담으로 건강상태 확인 등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문제와 고령자 등 153명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쪽방 순찰반 등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 보호를 위해

“응급잠자리로 와서 추위 피하세요”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한다. 시는 “아무리 거리상담을 촘촘히 하더라도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노숙인을 보면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당부했다.

특히 사고위험이 높은 겨울철 특별보호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은 누구나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에서는 위급상황 신고·접수 시 거리상담 현장출동을 강화하고 (3개 시설 → 4개 시설, 차량 5대 → 차량 8대), 경우에 따라 관할 자치구, 경찰, 지역 소방서, 국·공립병원,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다.

시는 노숙인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 받은 겨울옷 2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노숙인시설, 쪽방상담소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랜드복지재단, 영원무역, LH공사 등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을 위한 겨울옷과 속옷 등 2만 점을 확보했다.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의료 후원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으며 관련 사항은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

인에게 침낭 800개, 핫팩 12만개 등을 신규로 구매해 지원할 예정이며, 쪽방주민의 경우 의료후원 외에도 기업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쌀·김치·연탄·의류 등 3종 10,425점의 후원약정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장판·겨울내외·겨울이불·라면(식료품) 등 추가 후원을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화재예방 및 동파 등의 안전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소방관서 협조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소방 장비 작동을 점검하고 쪽방촌에서는 전문기관을 통해 전기·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해 화재 예방할 계획이다.

쪽방상담소에는 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따뜻한 급식도 계속 제공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서울역 실내 급식시설(따스한 채움터)에서 1일 최대 총 2,133식을 제공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한파는 노숙인·쪽방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만큼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 모두 중요하다.”라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한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보호대책을 잘 시행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해 보살피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 적극 추진!

축산재해 대책상황팀 운영으로 가축피해 예방활동 총력

경상남도는 대설, 한파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0.5°C)과 비슷하고 강수량도 평년(89.0mm)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설·한파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가축 및 축산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 예방을 통한 농가 재해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 축산재해 대책 상황 전담팀(T/F팀) 운영 ▲ 가축 및 축사시설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홍보 ▲ 겨울철 축사 화재예

방 추진 ▲ 폭설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16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축산재해 대책 상황 전담팀(T/F팀)'을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하며 시군·지역축협·축산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기누전 및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부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0억 원, 불량 전기시설 보수를 통한 화재 예방으로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축사 전기안전시설 보수 지원'에 1억 원을 확보해 내년도 농가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손영재 경남도 축산과장은 “겨울철 가축 사양관리를 위한 농가의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축사 화재와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축산재해 예방 사전점검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주요 가축은 소 36만 마리, 돼지 128만 마리, 닭 1,093만 마리, 오리 75만 마리 사육하고 있으며, 축산시설 10,355개소가 허가(등록)되어 있다.

장재현/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보성군, 소 럼피스킨·고병원성 AI 대비 통합 방역 관리 추진

방역대책본부, 특별소독반 편성... 소 농장 차단 방역 강화

보성군은 소 럼피스킨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한 통합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10월 20일 충남 서산에서 국내 처음 발생했다. 지난 11월 20일 기준 현재까지 전남 2건(무안군, 신안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106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 고병원성 AI 등 다른 가축전염병 발생확률도 높아지므로 꼼꼼한 방역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성군은 빈틈없는 방역 관리를 위해 지난 10월 23일부터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월 5일을 기점으로 관내 한우

및 젖소 전 두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마쳤으며 항체가 형성되는 3주 후인 11월 26일부터 전 두수에 대한 항체형성률 조사가 나설 계획이다.

또한, 현재 7명의 공수의료 이뤄진 럼피스킨 예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해 축협 공동방제단 등 가용한 모든 소독자원을 동원해 축산시설 및 농장에 대한 전면적인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음·면역로는 특별 소독반을 편성해 소 사육 농가 주변의 물웅덩이를 비롯한 기타 취약 지역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소 사육 농가에는 생석회와 소독약,



흡혈 곤충 방제약 등을 공급해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항체형성이 완료되는 11월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좀 더 방역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럼피스킨과 고병원성 AI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원영/기자

경북교육청, 디지털 대전환 시대 에듀테크 활용 수업 능력 전국 최고!

전국 최초, 17년 연속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 최우수 교육청 선정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제17회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디지털 교육 연구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17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최·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에듀테크를 활용한 우수 교수·학습 실천 사례를 발굴하고 초·중·고 교실 수업 혁신과 미래지향적 수업 적용 확산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본선 대회에 앞서 경북교육청(주최)과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주관)은 예선 연구대회를 운영하여 본선 대회 준비를 위한 연구대회 연수회 운영과 참가 교사 개별 집중지도 등 여러모로 지원했다.

그 결과, 전국 입상작 84편 중 경북에서 전국 최다 30편에 입상

하여 17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경북교육의 정보 교육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널리 알렸다.

입상 분야별, △디지털 학습분과 1등급 5편, 2등급 6편, 3등급 11편 입상 △교육용 SW-AI 분과 1등급 2편, 2등급 1편, 3등급 1편 입상 △학교경영분과 1등급 1편, 2등급 1편, 3등급 2편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경북교육청은 전체 전국 1등급 15편 중 경북이 8편(53%)을 수상하는가 하면, 전국 대회 입상 비율도 전년 19건 대비 올해 30건으로 57% 이상 증가했다.

이는 경북 도내 교사들의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예선 대회를 주관한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박용휘 원장은 "우수한 입상작이 학교 교육 현장에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교육 정보화 연구대회가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에 밑거름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이 1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광은 따뜻한 경북교육 실천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대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라고 공을 치하했다.

이어, "에듀테크 활용 우수 실천 사례 확산으로 교수·학습 방법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교사의 수업력 증진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력 향상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교실 수업 혁신 선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부산교육청, 내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 1만 1,830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830원으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최저임금과는 다

른 개념으로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정한 임금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21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6일 오후 2시 시교육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회의를 통해 2024년 교육공무직원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 1,540원에서 2.5% 인상한 1만 1,83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970원, 부산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350원보다 480원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중 근로 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교육청·직속기관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1월부터, 각각 소속 교육공무직원은 내년 3월부터 각각 적용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매년 인상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지역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내년 생활임금이 저성장,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제16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 성료

경북교육청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간 스포츠로 하나 되는 '제16회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농구 경기'를 상주시 실내체육관을 비롯한 5개 경기장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경북교육청, 대한체육회, 경북체육회, 경북농구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학교체육진흥회가 총괄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92개 팀(남초 17, 여초 14, 남중 17, 여중 16, 남고 17, 여고 11), 1,26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승패를 떠나 농구를 통해 우정을 나누며 꿈을 키우는 축제의 장을 만들었다.

경기 결과, △남초부 세종 새롬초등학교 △여초부 충남 온양동신초등학교 △남중부 서울 휘문중학교 △여중부 서

울 변동중학교 △남고부 경기 관양고등학교 △여고부 경기 고촌고등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또한, 제주 인화초등학교, 경북 경산 여자중학교, 경기 고촌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 훈격의 페어플레이상 수상학교로 선정됐다.

경북교육청은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를 위해 경기장마다 안내요원 4명(상주시 적십자봉사단 협조), 운영요원 3명씩을 배치했으며, 박진감 넘치는 경기 장면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출력해 출전팀에게 제공하여 농구 축전의 추억을 만들었다.

또한 단순한 경기 위주의 대회가 아니라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해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주 경기장인 상주시 실내체육관에서 △농구 숏 게임기 △DIY 농구 게임 만들기 △스캐리커처 △풍선아트 등 13가

지 체험 부스를 운영하여 출전 학생과 응원 온 학부모, 학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대회 첫날 저녁에 개최한 어울림 한마당은 출전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며, 사전 공연 신청을 한 7개 팀과 축에서 지원한 학생들이 끼를 마음껏 발휘했다.

아울러 게스트 출연한 상무 농구단 선수와 기념 촬영, 사인받기는 출전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

민병도 체육건강과장은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모두가 즐기는 안전한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안전 사고 없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한 것에 큰 의미가 있으며, 내년도 더 알찬 경기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영양교육지원청, 더 지니어스(the Genius) 우리가 미래!

2023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학부모 공개수업 및 수료식



영양교육지원청은 2023년 11월 18일 2023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초등융합영재반 학부모 공개수업과 수료식을 개최했다.

'도전! Green 에너지 마을' 설계-제

작 후 소감 나누기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된 학부모 공개수업은 태양광을 이용해 필요한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면서도 지구를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을 탐구하는 시간으로 총 136시간의 영재 교육과정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어서 개최된 수료식에서는 지난 일년여 동안 영재교육원 활동에 대한 운영보고와 교육 활동 영상 시청, 수료증 및 시상품 전수, 학생 및 지도교사 소감 발표와 기념사진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수료식에 참석한 한 학생은 "영재 수업을 들으면서 융합과학과 AI, 발명, 친환경 등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내년도 지원하여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더 많이 배우고 싶다"고 소감을 남겼다.

영양교육지원청 김유희 교육장은 "1년간 성실하게 배우고 노력한 결과로 맞이하게 된 영광스러운 수료식을 축하한다. 학생들이 따뜻한 인성과 창의적인 리더십을 갖춘 미래형 인재로 자라주길 바란다. 여러분이 미래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23학년도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은 초등융합영재 1개반, 총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024학년도에는 초등창의융합과 초등인문 2개 과정으로 각각 20명의 정원을 모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을 통한 미래형 융합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사회과학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2023학년도 청렴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체험연수 실시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1월 17일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청렴과 소통으로 함께하는 학교운영위원장 현장체험연수'를 울진군 일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현장체험연수는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역량강화를 위해 실시 됐으며,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해 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장이 함께 소통하고 단위학교 운영위원간의 정보교환의 장이 됐다. 또한 학교발전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불법찬조금 예방교육과 청탁금지법 교육을 함께 실시했다.

이상석 지역협의회장은 "학교운영위원장 및 위원을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현장체험연수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급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명호 교육장은 "행복 의성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현장체험연수가 의성교육 발전에 밑거름이 될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1번지 치유의섬 '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

충북, 경제위기에 불구 투자유치 10조원 조기 달성!

23.1월 신설 투자유치국 경제버팀목 역할 특독



충청북도는 2023년 11월 20일 기준 투자유치 10조 3,104억원을 기록하여 올해 목표액 10조원을 조기 달성했다. 충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확고한 우위 선점, 신(新)성장산업분야 기업유치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투자유치국을 신설했고, 기업유치-산업단지-기반조성-기업 애로지원까지 기업투자지원의 일원화를 위한 투자유치 전담 조직을 구성한 신설 첫 해에 의미 있는 수확을 거두었다.

충북은 올해 세계적인 금리인상, 러·우 전쟁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제조업 분야에 주력했던 기존 투자유치 틀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벤처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 미래 신산업 분야까지 투자유치의 외연을 확장하는 등 노력을 다각화한 결과 2023년도 투자유치 목표액인 10조원을 초과 달성함은 물론 민선8기 공약인 투자유치 60조원의 61.8%인 37조 1,334억원을 달성함에 따라 공약의 성공적인 이행도 청신호가 켜졌다.

고정화/기자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중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자 상시 의견제출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 운영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련 부서로 방문 및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열린 창구를 통해 제출된 의견에 대해 다음 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시 사전 반영하거나, 산정된 지가를 감정평가사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처리결과를 제출자에게 별도 통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조사대상 필지를 파악했다. 조사대상 86만 5천여 필지에 대해 22일부터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과 이용 상황, 도로 조건 등 개별지 특성을 분석 후 이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 배율을 곱해 개별 토지에 대한 1㎡당 가격이 결정된다. 이후, 산정된 지가를 바탕으로, 감정평

가사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최종 결정된 공시가격은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올해 서울 개별공시지가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비해 평균 5.56% 떨어졌으며, 2009년 이후 14년 만의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마무리되면,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1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의견 청취와 이의신청 기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일사판리 누리집을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위 기간 동안 자치구별 실적에 맞게 감정평가사 상담창구도 개설, 운영해 개별공시지가에 의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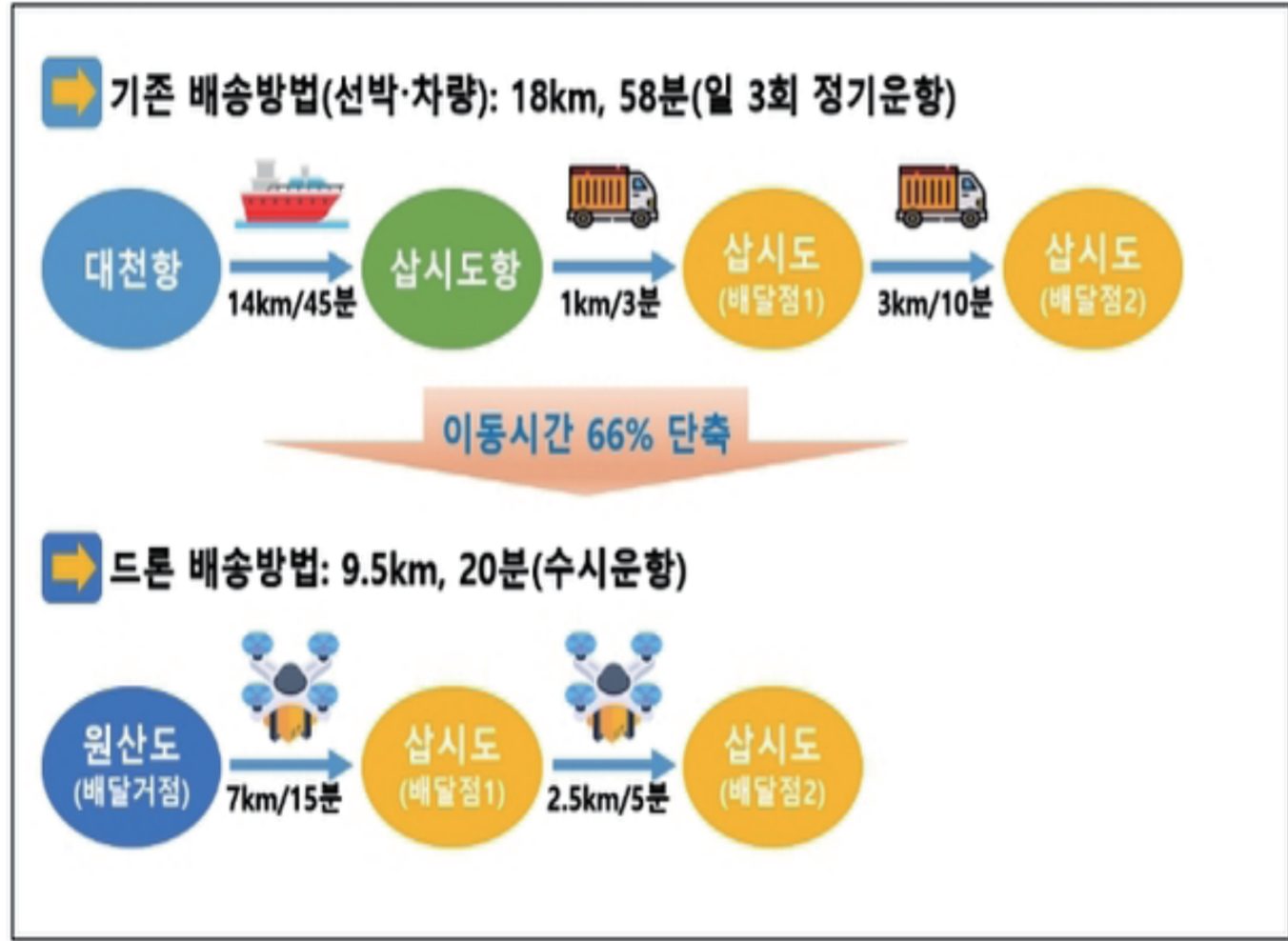
있는 시민이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의 동향 분석도 추진한다. 그간 공시지가 민원은 늘 있었지만,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반복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분석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5년간 공시지가 민원 제출 이력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시지가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에 예측하는 분석 모델을 개발하는 등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토지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균형 잡힌 공시지가가 조사·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행정안전부, 드론 택배, 원하는 주소로 받는다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협업으로 장거리 드론배송 개막

(1코스) 이동거리 47%(18km→9.5km), 이동시간 66%(58분→20분) 단축



대전항에서 배편으로 1시간 50분 거리에 있는 외연도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씨는 섬에 독감이 유행하면서 해열제가 바닥 보령시 보건소에 해열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 잦은 안개로 인한 배편 결항이 이어지면서 언제 해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주민들에게 제때 처방을 해줄 수 없을까 걱정하고 있던 씨는 얼마 전부터 우편물 드론 배송 서비스 중인 것이 생각나 드론을 이용해 해열제를 외연도 보건진료소 인근 사물주소로 배송해달라고 요청했다. 드론이 출발한 지 40분 만에 도착 지정된 배달점으로 물품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왔다. 행정안전부는 11월 21일, 충남 보령시에서 우체국 택배와 주소기반 드론배달점을 연계한 섬지역 드론배송 실증 시연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연행사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리고 드론 관련 기업인이 참석한다. 행정안전부는 드론배송 산업의 출현에 따라 사람과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일원화된 드론배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하여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했다. 드론 배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은 드론배달점 설치하고, 해당 배달점에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다. 드론 배송에 어려운 GPS좌표가 아닌 주소를 기반으로 한 '사물주소'를 활용하면 기억하기 쉽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 간의 소통도 원활해진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소기반 드론배송에 대한 개념 정립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고, 2023년 현재까지 물류배송이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 450여 점의 배달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등 지속적인 시험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2년에는 폭설 등으로 이동이나 접근이 제한되는 산간지역 드론배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강원도 영월, 경기도 가평을 대상으로 안전성 실증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물류 배송이 취약한 섬 지역이 있는 충남 보령시를 대상으로 드론배달거점 3점, 드론배달점 27점을 설치하고 사물주소를 부여했다. 구축된 배달점은 각 섬 특수지 공물류 배송에 활용된다. ○ 이번 실증 시연은 우정사업본부, 국토교통부와 협업했으며, ▲실제 우편

물과 긴급의약품 등 드론배달거점에서 인근 섬 지역으로의 배송과 ▲35km에 달하는 외연도까지 장거리 배송 가능성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장거리 실증에 투입되는 드론은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에 투입된 드론과 동일한 기종이다. 실증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송 환경이 조성될 경우 기존 2, 3회 정기 운항하는 선박을 통한 물류배송과는 다르게 주문자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드론배송으로 배송시간이 대폭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삽시도의 경우 기존 선박과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58분 소요되던 것을 드론으로 배송할 경우 20분 정도 소요되어 38분(기존 배송시간 기준 66% 단축)을 단축했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드론배송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겨 국민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산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경북 세계유산을 통해 **지방시대**를 견인하겠습니다!

- 외연확장**: 가야고분군(고령 지산동 고분, '23.9. 등재유역), 태실, 한지, 활문화 등 신규발굴
- 맞춤형 관광자원화**: 신라왕경 역사자료길, 하회면 퀸스로드, 서원·산사 명품순례길 조성
- 디지털 대전환 선도**: 천년 신라왕경 디지털(메타버스) 복원, 천년 유교경전각 건립
- 문화유산 생태계 혁신**: 디지털 콘텐츠 산업클러스터 조성, 답리남 기반 전통기록물 해독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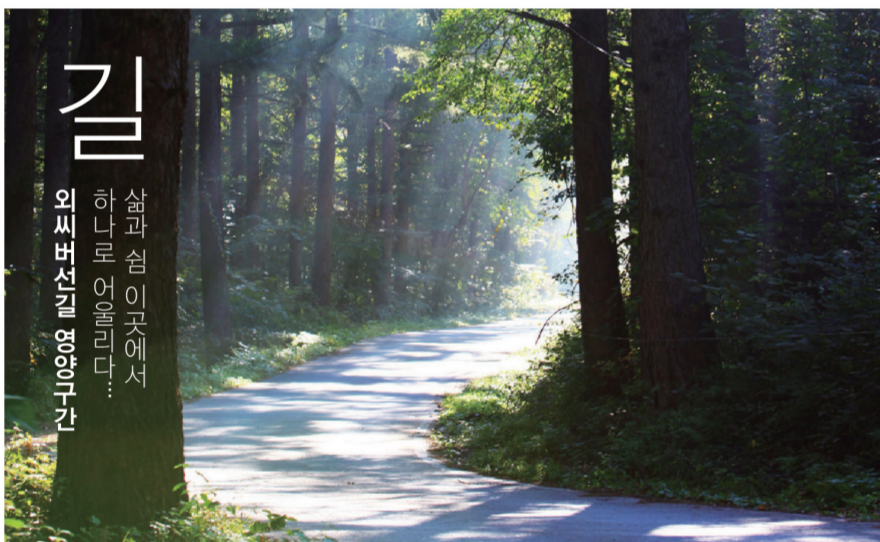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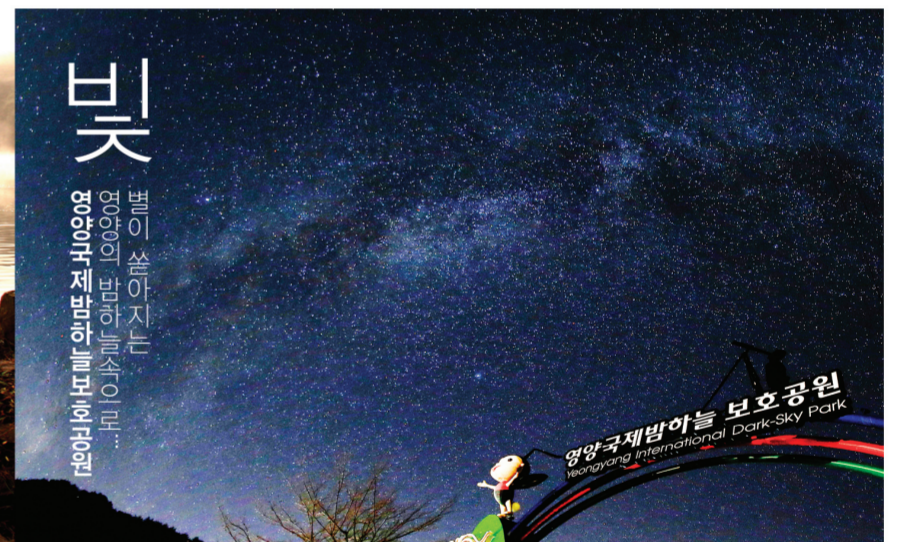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다운 영연길...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물
영양의 향연은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영연길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얼
시냇물의 대가
영양서석지



맛
시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지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